

자연·놀이·아이 중심

서곶시
새태진화
어린이지
안내서



들어가며

본 안내서는 '서울시 생태친화 어린이집'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생태친화 보육을 위한 컨설팅'에 참여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뿐만 아니라 생태유아 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 부모님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개발하였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는 정해진 일과에 따라 학습과 수업 중심의 일과에 맞추어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과 공간, 교재교구를 가지고 주어진 지침에 따라 일과를 진행하다 보니, 아이들의 창의성을 키우기 어렵거나 아이 주도적인 놀이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늘어져 왔습니다. 마침 정부에서도 교육과정이 놀이와 유아중심이 되고, 현장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보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3~5세 누리과정을 개편하여 2020년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누리과정은 교육과정의 5개 구성 영역은 유지하되 기존의 연령별로 제시한 세부내용(369개)을 통합, 조정하여 3~5세 유아가 경험해야 할 최소한의 공통 내용(59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 누리과정은 교실환경 구성과 교육과정 운영에서 흥미영역과 자유선택활동, 이야기 나누기를 포함한 대·소집단활동, 연간·월간·주간·일일 교육계획안, 주제중심 통합적 접근 등에 관한 규제 조항이 사라지면서 자유놀이 위주의 실질적인 유아중심, 놀이중심, 생활중심, 연령통합의 다양한 방식의 보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자신의 몸 마음 영혼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생활하는 시간과 공간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고,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보육을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한 큰 변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태친화 보육이란 자연 친화적인 보육활동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아이의 욕구를 중시하며 아이다움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보육입니다. 생태친화 보육은 1990년대 후반부터 ‘생태유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자연·놀이 중심으로 아이다움을 되찾아 주고자 일부 보육 현장에서 실천되어 왔는데, 서울시는 이러한 실천경험과 성과를 검토하여 우리의 여건과 보육 현장의 상황에 맞는 서울형의 생태친화 보육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이는 정부의 보육과정 개편의 방향과도 일치하며, 서울시의 보육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려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생태친화 어린이집 안내서’는 제1부에서 서울시의 생태친화 어린이집 사업과 생태친화 어린이집이 다른 어린이집과 어떻게 다른지를 알기 쉽게 소개하고, 제2부에서는 생태친화 어린이집을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을 드리는 컨설팅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제2부에서는 생태친화 보육 컨설팅이 무엇이며,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안내하여 컨설팅에 참여하려는 보육교직원들의 사전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컨설팅을 통해 어린이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생활공간, 생활운영, 보육과정, 아이와 교사관계, 건강과 안전의 5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영역별로 생태친화 보육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도움말을 담고, 실제 컨설팅에 참여한 어린이집의 이야기도 함께 담아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생태친화 어린이집은 아이와 교사, 부모가 함께 만들어가는 어린이집입니다. 생태친화 보육이라는 정해진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르치거나 현장에 적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각각의 여건에 맞는 생태친화 보육이 무엇인지를 교사와 부모가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이번 컨설팅의 핵심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것은 오래된 습관과 익숙한 환경을 바꾸어야 하므로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작은 한 걸음의 실천에서 큰 변화가 시작됨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생태친화 어린이집 안내서’가 아이들이 행복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한 보육현장의 작지만 의미 있는 노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가며	04
------	----

제 1 부 생태친화 어린이집을 소개합니다	08
-------------------------------	----

I. 서울시 '생태친화 어린이집' 사업	09
------------------------------	----

1. 이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09
2.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09

II. '생태친화 어린이집'은 무엇이 다른가요?	12
-----------------------------------	----

1. 생태친화 어린이집, 왜 필요한가요?	13
2. 생태친화 어린이집에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15
3. 생태친화 어린이집에는 다섯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16

알아봅시다! 생태친화 보육에서 놀이의 중요성	18
---------------------------------	----



 제 2 부 생태친화 보육 컨설팅을 소개합니다 20

I. 생태친화 보육 컨설팅 이해하기 21

- 1. 생태친화 보육 컨설팅에 대해 알아봐요! 21
- 2. 생태친화 보육 컨설팅, 우리가 함께 꾸려갑니다! 22
- 3. 생태친화 보육 컨설팅, 이렇게 진행합니다! 24

II. 생태친화 어린이집, 이렇게 만들어요 : 다섯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29

- 1. 생활공간 30
- 2. 생활운영 37
- 3. 보육과정 40
- 4. 아이·교사관계 51
- 5. 건강·안전 54

 살며봄시다! 생태친화 보육 컨설팅 사례 59

부록 66

- 1. 생태친화 어린이집 컨설팅 서식
- 2. 교육부·보건복지부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2019.12.)
- 3. 생태친화 보육 관련 어린이집 평가제 개편 내용(2019.6.12.)



제1부

생태친화어린이집을 소개합니다



서울시 '생태친화 어린이집' 사업

1 이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서울시는 교실 안 학습교재·교구 중심의 보육과정을 탈피, 영유아의 생태체험과 놀 권리를 보장하는 '생태친화 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2년까지 자치구별 5개소, 모두 125개소를 거점형으로 조성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4개구 20개소를 선정하는데, 선정된 어린이집에는 생태친화 보육을 집중 지원하며, 이를 거점으로 삼아 다른 어린이집과도 성과를 공유하고 연구모임 등을 통해 생태친화 보육을 확산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국공립어린이집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보육 기반을 늘려왔다면, 이제는 보육의 질적 개선에 나서고자 합니다. 현재 어린이집은 정해진 보육일정에 따라 학습과 수업중심의 일과에 맞추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서 주로 실내 공간에서, 일정한 교재교구로 반복적인 하루 일과를 진행하다보니 아이들의 창의성을 키우기 어렵거나 아이 주도적 놀이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늘 이어져왔습니다.

실제로 서울시가 2019년 4월 보육교직원 및 부모 2,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태친화 보육 관련 설문조사 결과, 생태친화 보육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태친화 보육에 대해 교사, 원장, 부모 모두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0%가 넘었으며, 놀이공간 조성(35.9%), 생태친화 보육프로그램 개발 보급(32.1%)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기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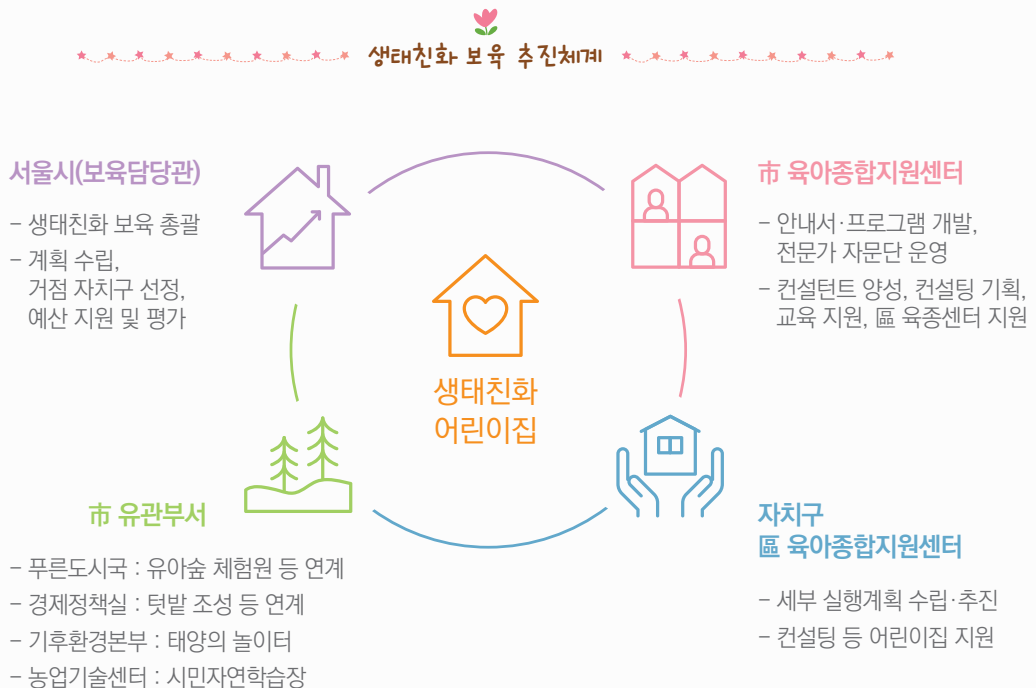
2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서울시가 조성하여 운영하려는 생태친화 어린이집은 생태친화적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으로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두지 않고 자연·놀이·아이 중심의 다양한 보육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우선 놀이공간의 측면에서, 어린이집 내 공간이나 인근에 다양한 생태친화 보육이 가능한 텃밭, 실내외 놀이터를 조성해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거나, 어린이집의 부족한 야외놀이공간을 지원하기 위해서 '유아숲체험원'(62개소), '유아동네숲터'(296개소)를 연계하여 지원하고, '태양의 놀이터'(에너지드림센터), '시민자연학습장'(농업기술센터) 등 서울시 유관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바깥놀이 활동도 짜인 일정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놀이를 주도해 놀이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흙이나 모래, 물만 있어도 여러 가지 놀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합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생태친화 어린이집 조성에 있어서 보육교직원과 부모가 함께 협의하며 참여하도록 보육공동체의 인식개선 활동도 병행합니다. 글자, 숫자 공부 등 학습적인 면에 대한 요구가 높은 현실에서 생태친화 보육을 이해하고 생태친화 보육을 통해 놀이와 학습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공감하기 위해 자발적인 모임이나 관련 시설 탐방,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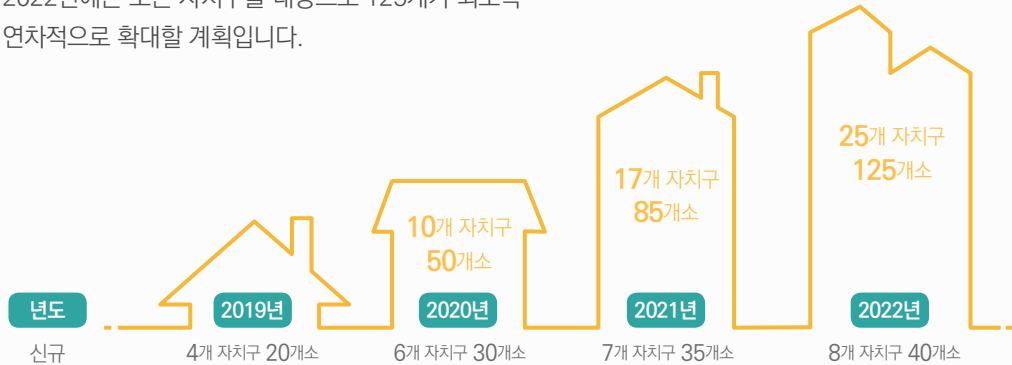
1 추진방법

서울시가 예산지원 등 사업을 총괄하고, 자치구와 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사업을 추진해 나가며,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안내서 개발, 컨설팅 지원 등 자치구 사업추진을 지원하게 됩니다. 관련 전문가, 보육단체, 어린이집 부모·원장·교사 등으로 구성되는 생태친화 보육 자문단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추진계획

올해는 우선 4개 자치구, 모두 20개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2022년에는 모든 자치구를 대상으로 125개가 되도록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3 지원사항

선정된 어린이집(4개구, 20개소)에 대해서는 놀이공간 등 생태관련 시설조성과 생태친화 보육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지원, 나아가 생태친화 보육을 확산하기 위한 교사와 부모들의 다양한 연구모임이나 공유활동까지
지원합니다.



시설조성 어린이집 내·외부 놀이공간 조성

- 다양한 생태친화 보육이 가능한 텃밭, 산책로, 실내외 놀이터 조성
- 인근 야산 및 텃밭, 너른 마당 등 어린이집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설치



생태 프로그램 운영 안내서 제공 및 컨설팅 지원

- 서울시 생태친화 보육 안내서, 프로그램 개발 등 컨설팅 지원(월 1회)
- 유아숲, 텃밭, 먹거리 개선, 에너지 절약 등 관련 市 생태 자원 연계



생태친화 보육 확산 교사 교육 및 우수사례 발굴 등 성과 공유

- (선정 자치구) 생태보육 이해 증진, 소그룹 연구·교육 지원
: 자치구별 보육교직원 「디딤돌 공동체」 조직, 부모 대상 교육 등
- (전체 자치구) 생태친화 어린이집 추진상황 및 성과 공유·확산
: 교육 및 워크숍, 안내서 공유, 우수사례 확산(성과보고회, 시설 참관 등)



'생태친화 어린이집'은 무엇이 다른가요?

'생태친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 영유아, 부모가 함께 '생태친화 보육'을 실천하는 어린이집입니다. 생태친화 보육이란 유아숲 체험 등 자연친화적인 보육활동을 넘어 아이의 욕구를 중시하고 아이다움의 구현을 도와주는 보육입니다. 기존 보육과정에서 취약할 수 있는 자연경험, 놀이체험 그리고 교사와 부모의 인식변화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이를 밝고, 천진난만하며, 활기찬 아이다운 아이로 기르고자 보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생태친화 보육은 아래에서 보듯이 보육의 관점, 어린이집 환경과 생활, 교사와 부모의 역할 등에서 기존 보육과정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태친화 보육방향

행복한 아이

어른(교사, 부모) 관점, 어른 의도 관철

→ 아이다움, 아이주도

과도한 통제와 지침, 경쟁

→ 아이행복중심, 자율, 조화, 공동체

어린이집 환경

정해진 시간, 정해진 공간, 연령 구분, 정해진 교재교구

→ 여유로운 시간, 개방된 공간, 연령의 자연스런 통합, 자연물 놀잇감

어린이집 생활

지식·지능·이성 중시, 학습과 수업 중심 보육

→ 몸·오감·감성 중시, 놀이·체험 중시, 자연과 함께하는 보육

교사와 부모의 역할

교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부모의 과도한 요구와 불신

→ 자긍심을 가지는 교사, 함께 보육에 참여하는 부모

1 생태친화 어린이집, 왜 필요한가요?

1️⃣ 어른의 만족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합니다.

“생태친화 어린이집”에서 구현하는 생태친화 보육의 목적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로 자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아이들로 잘 자라기 위해 ‘서로 믿고 협력하는 보육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이를 어떻게 잘 자라게 할 것인가?’라는 보육의 본질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보육의 모든 이론과 실체는 아이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아이들의 놀고 싶은 욕구보다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거나 교사의 과도한 통제에 따르는 아이를 기대하지는 않았는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아이는 교실 밖으로, 놀이터로, 숲이나 자연으로 나가서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생태친화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보육 프로그램의 도입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육의 주체인 아이를 바라보는 아동관, 보육을 바라보는 교육관, 교사의 지위와 역할인 교사관, 놀이와 수업의 개념, 어린이집에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 등 보육의 가치와 철학, 어린이집의 운영의 내용과 방법 전반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지원하는 것이 생태친화 보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2019 개정 누리과정¹⁾은 놀이와 아이가 중심입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의 핵심
놀이·유아중심 교육과정, 유아의 자유놀이 권장, 현장의 자율성 확대

- 만3~5세 유아의 연령별 내용이 만3~5세 통합 내용으로 개편
- 교사용 지도서 폐지와 각 어린이집의 보육과정 자율성 확대
- 놀이중심 일과 운영

2017년 교육부는 유아교육혁신방안을 발표(2017.12.27.)하고 놀이·아이중심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누리과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누리과정이 2019년 7월 24일 고시되었으며, 2020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누리과정은 종래의 누리과정이 간략화 되고 자유놀이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보육과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육의 역사에서 아이들의 놀이를 강조하지 않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강조하는 ‘놀이중심’ 보육과정으로의 변화는 두 가지 면에서 어린이집 내에서의 아이들의 놀이와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첫째, 놀이가 하루일과의 중심이 됩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대부분 보육계획안에 맞춰 실내자유선택활동, 대소집단활동, 점심시간, 낮잠, 실외놀이 등으로 하루일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이들이 하고 있던 놀이나 바깥놀이를 계속 하고 싶다 해도 미리 계획된 다음 일과로 인해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하루일과에서 바깥놀이를 포함하여 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생태친화보육에서 강조하는 놀이가 중심이 되는 보육과정이 구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어린이집의 철학과 실정에 맞는 다양한 보육계획을 시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기존의 어린이집에서는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주제에 맞춰 보육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제중심 통합’은 교사가 유아의 흥미와 발달, 학습에 적합한 주제를 선정하여 이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누리과정 5개 영역의 내용이 통합되어 학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²⁾ 이는 아이들의 관점에서 흥미와 관심을 찾기보다는 교사가 정한 ‘주제’ 중심으로 놀이가 계획되고, 5개 영역별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평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주제 중심’으로 제시된 교사용 지도서가 폐지됨에 따라, 어린이집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다양한 보육계획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생태친화 보육의 실천이 손쉬워졌습니다.

생태친화 보육에 유리하도록 어린이집 평가제가 바뀌었습니다.

기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에 제시되어 있는 보육계획 및 하루일과 운영 등의 지표기준은 융통성 있는 보육과정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누리과정 개편과 발맞추어 2019년 6월 12일 시행된 어린이집 평가제는 주요 핵심지표 중심으로 지표·항목 수는 감축하고, 영유아 권리존중 및 놀이중심 평가기준은 확대하고, 어린이집의 상황 및 특성에 따른 운영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제의 개편으로 유아와 놀이가 중심이 되는 생태친화 보육이 보육교직원과 부모의 도움을 받아 실제로 현장에 자리 잡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생태친화 보육과 관련한 어린이집 평가제의 내용은 ‘부록 3’에 수록하였습니다.



1) 「2019년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2) 육아정책연구소(2012).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교사연구 자료집. p.37.

2 생태친화 어린이집에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 수업시간에 흥미를 잃는 아이가 없습니다.
- 아이들이 관심 없어 하는 활동이나 교구가 없어집니다.
-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과 교사 간의 실랑이가 없어집니다.

하나

수업시간에 흥미를 잃는 아이가 없습니다.

특정한 주제에 맞춰 진행되는 이야기나누기 시간, 10여분만 지나면 몸을 배배 꼬면서 옆 친구와 장난치는 아이들이 생겨나고, 영아반에서는 교사 혼자 묻고 답하며 ‘내 역량이 부족한가?’, ‘이런 이야기나누기가 꼭 필요할까?’ 라고 생각해 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생태친화 어린이집에서 이야기나누기는 “오늘 산책은 어디로 갈까?”, “오늘은 무엇을 하고 놀까?” 이런 종류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주인이 되는 활동에서 아이의 본성을 발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둘

아이들이 관심 없어 하는 활동이나 교구가 없어집니다.

생태친화 어린이집은 공간을 구획 짓는 ‘흥미영역별’ 공간 구성을 하기보다 교구장은 벽으로 밀어, 아이들이 생활주제가 아니라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를 펼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듭니다. 이 같은 놀이 공간에서는 아이들의 놀이가 서로 만나고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놀잇감 역시 생활주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하고 일 년 내내 가지고 노는 것으로 채워집니다.

셋

아이들과 실랑이가 없습니다.

생태친화 어린이집의 선생님은 몇 십분 단위로 정해진 계획에 따라 아이들을 이끌고 지시하는 데 힘을 들이지 않습니다. 이곳의 일과는 정해진 집단 활동 대신 자연과 친구들을 접하며 잘 먹고, 잘 자고, 충분히 뛰어노는 아이다운 삶의 경험들로 채워집니다. 아이들은 이러한 자연스러운 생활을 좋아하고 그래서 스스로 움직입니다. 교사는 그런 아이들을 한 걸음 뒤에서 도와주며 따라갈 뿐입니다.

3 생태친화 어린이집에는 다섯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 아이들이 밝고 건강해집니다.
- 부모들이 어린이집의 든든한 지지자가 됩니다.
- 보육교사로서 자긍심이 살아납니다.
- 교사도 건강해지고 삶이 여유로워집니다.
-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이 안전하고 건강해집니다.



하나

아이들이 밝고 건강해집니다.

생태친화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를 밝고 건강하게 키우고자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아이를 키워 온 방식으로 건강한 먹거리와 자연과 함께 어울리는 생활을 통해 아이들은 건강해집니다. 실제 생태친화 어린이집은 아이들의 웃음과 이야기 소리로 가득합니다.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고 활기차다는 것, 할 말이 많아졌다는 것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의 시간과 공간과 경험들의 주인이 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둘

부모들이 어린이집의 든든한 지지자가 됩니다.

부모가 어린이집을 평가하고 교육을 서비스로 제공 받는 ‘손님’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동반자’로서 함께 참여하는 문화가 형성되면 불안과 걱정으로 CCTV에 의존하는 상황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부모의 변화는 아이들이 밝아지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모습을 통해 어린이집의 철학과 방침에 관심을 가지고 신뢰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셋

보육교사로서 자긍심이 살아납니다.

생태친화 보육 컨설팅을 마친 후 많은 교사들이 처음 보육교사를 시작할 때의 마음, 초심을 되찾았다는 말을 합니다. 보육교사 생활을 오래 지속하다보면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은 점차 사라지고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 아이들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생태친화 어린이집에서는 삶이 배제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교수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생태친화 어린이집의 아이들은 선생님의 사랑과 미소, 믿음과 칭찬을 먹고 자랍니다. 이런 아이들은 몸이 커지고 마음이 커지고 생각도 커집니다. 아이들과 즐겁게 놀아주고 함께 생활하는 따뜻하고 친근한 선생님이 필요하고 그러한 변화는 보육교사로서 자긍심을 되살려줍니다.

넷

교사도 건강해지고 삶이 여유로워집니다.

생태친화 어린이집에서의 건강을 위한 모든 실천은 아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생태친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도 건강한 식생활과 자연건강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합니다. 또한 촘촘한 학습일정보다는 산책과 바깥놀이를 바탕으로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보육과정은 선생님의 삶을 여유롭게 합니다. 또한 보육교사는 부모와 시민들의 따뜻한 미소와 격려 한마디가 교사로서의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보육교사의 신바람은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다섯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이 안전하고 건강해집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환경호르몬, 미세먼지 등의 유해물질이 많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생태친화 어린이집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동시에 자연생태계의 다양한 생명들의 건강과 행복을 돌보기 위한 실천을 합니다. 생태친화 보육의 유기농 먹거리, 텃밭 가꾸기, 절제와 절약의 실천 등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실천과 맞물려 있습니다. 생태친화 보육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매일 애를 쓰고 무리해야 하는 부자연스러운 보육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보육은 자연스러워야 하고, 그래야 삶이 됩니다.

삶이 되면 아이들 스스로 하게 되고 그렇게 배운 것은 오래 갑니다. 그것이 좋은 보육입니다.



생태친화 보육에서 놀이의 중요성

: 신나게 놀이하는 아이

아이들은 놀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놀이는 아이들의 생활이고 일이다. 아이들의 놀이는 성장과 발달, 창조와 진화의 원천이다. 아이들은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개구쟁이처럼 신나게 놀아야 한다(임재택, 2019).

생태친화 보육에서는 보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자연”, “아이다움”, 그리고 “놀이”를 강조해왔다. 여기서는 생태친화 보육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놀이”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놀이의 의미는 놀이의 주체인 아이들의 놀이 속에서 찾아야 한다. 교수나 교사가 놀이라고 규정한다고 해서 놀이가 아니라 신나게 노는 아이들의 모습, 즉 놀이에 몰입된 아이들의 모습에서 놀이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임재택, 2019). 생태친화 보육에서는 “놀이”의 본래의 모습을 찾기 위해 유명한 학자나 사상가의 개념을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어린 시절의 놀이를 떠올려 보기를 권한다.

“내가 어린 시절 제일 좋아했던 놀이는 무엇인가요? 무엇이 재미있었나요?”

• 내가 제일 좋아했던 놀이

• 이 놀이의 어떤 점이 나에게 재미있었나요?

어린 시절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나의 무한한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 몰입했던 그 놀이, 그 시절의 그 어린 아이의 눈으로 아이들의 놀이를 바라보자. 바로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잘 놀 수 있는지 살펴보자. 이 놀이를 통해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지, 어디가 발달할지를 아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다. 아이들이 진짜 좋아하는 놀이를 알지 못한다면, 그 놀이에 담긴 발달적 학습적 효과를 아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생태친화 보육에서 추구하는 놀이의 본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놀이는 아이를 가장 아이답게 한다.

아이들은 놀이를 하면 신이 나고, 즐겁고 행복하며 창조적 지혜가 발동되며, 무한한 능력이 발휘된다. 아이들은 놀이에 몰입하면 즐겁고 신나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와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아집과 편견도 사라지고 시야도 넓어진다. 반면, 누가 시켜서 놀이를 하면 의무감에 억지로 하게 된다. 억지놀이를 하게 되면, 놀이에 몰입이 안 되어 정신이 분산되고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화가 난다(임재택, 2019). 생태친화 보육에서 놀이를 강조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아이들이 노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아이들에게 바깥놀이, 숲에서의 놀이를 강조하는 이유도 가장 아이다운 모습은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놀고 있을 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신명나는 아이”의 모습은 밖에서 뛰어 노는 아이들의 놀이 속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생태친화 보육이 아이들에게 되돌려주고자 하는 “자연과 놀이, 아이다움”이 통합된 모습이다. 아이들이 놀이를 좋아하는 이유는 아이들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잘 노는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자신에게 맞는 속도와 리듬으로 성장하고 발달을 하는 것이다.



놀이 속에서 아이들은 경험의 주인이 된다.

생태친화 보육에서 추구하는 놀이의 또 다른 특징은 놀이 속에서 아이는 자신의 경험의 주인이 된다는 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생태친화 보육에서는 교사주도의 수업을 가장한 놀이를 경계하고 있다. 아이가 경험의 주인이 된다는 말은 스스로 상황을 만들어 가고, 스스로 어떻게 행동할까 결정하면서 맥락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상황을 만들어가고, 전개해가는 힘은 놀이 속에서 만들어진다. 따라서 스스로 놀아 본 경험이 적은 아이는 생활의 주체로서 상황을 만들거나, 판단하고 맥락을 만들어가는 능력을 기를 수 없다. 교사에 의해 활동의 전개방식이나 방향이 이미 정해진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는 활동”은 아이 스스로 자신의 경험의 주인이 되었다고 느끼지 못한다. 스스로 자신의 경험을 전개시켜 나가는 힘을 얻기 어렵다. 아이들은 무엇인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진정 재미있을 때 몰입하며 그 때의 그 경험은 진짜 자기 경험이 된다.



놀이 속에서 아이는 세상과 관계 맺고 배우고 경험한다.

생태친화 보육에서는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다양한 존재와 관계를 맺으며 그 결과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고 생각한다. 친구들과 놀잇감과 다양한 소재들과 상황들을 경험하며 행복해하고 갈등하기도 하며, 무수한 맥락과 상황들, 감성과 감정들을 경험한다. 아이들이 놀이 속에서 만나는 무수한 관계들은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한다고 해도 결코 실현할 수가 없을 것이다. 놀이 속에서 아이는 스스로 원하는 것을 정하며, 의욕적이 되고 스스로 배우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놀이는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이루어진다.

생태친화 보육에서 추구하는 놀이는 실외에서 “자연”과의 관계 속에 이뤄진다. 바깥놀이, 산책, 텃밭 가꾸기, 세시잔치 등은 실내보다 바깥에서 이뤄지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그 이유는 아이는 실내놀이보다 실외놀이를 좋아하며, 자연은 언제나 아이들에게 지루하지 않은 놀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햇볕과 바람, 하늘, 흙모래, 동식물들, 날씨의 변화, 다양한 색깔, 탁 트인 공간 등은 실내공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잠재적 경험의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성태친화 교육컨설팅을
소개합니다



1 생태친화 보육 컨설팅에 대해 알아봐요!

생태친화 보육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아이다운 아이, 신명나는 아이로 기르고자 하는 흐름이 곳곳에서 일어나지만, 어린이집 현장에서 생태친화 보육의 실천은 더딘 편이며 때로 왜곡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생태친화 보육 프로그램을 한두 가지 도입하여 기관의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적용하고 부모들이나 외부에 보여주기 식으로 전개하는 형태를 들 수 있습니다. 생태친화 보육이 아이들의 일상적인 삶에 내재되는 것이 아니라, 일회적이고 구조화된 교사주도 활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흙을 고르고, 씨앗을 구하고, 씨 뿌리고, 물주고, 잡초를 뽑으며 매일같이 돌보고 함께하는 과정이 중요시되는 생태친화 보육의 텃밭 가꾸기가 많은 아이들이 줄지어 지나가며 텃밭을 구경하고, 수확시기 열매 따는 일회성 행사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즐겁고 신명나면서 새로운 탐색이 넘쳐나는 산책과 바깥놀이가 짧은 시간 동안 교사주도의 활동으로 전개되거나, 여러 날에 걸쳐 자연이나 이웃과 함께 몸으로 체험하는 절기의 세시풍속 잔치를 교사가 수업으로 전달하고 일일체험 활동으로 박제화 하는 방식 등입니다.

이는 자연과 사람과 생명의 관계 안에서 스스로 살아가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자발적이고 주도적이고 주체적으로 체득하는 과정인 생태친화 보육을 ‘교사가 가르치는 학습활동’으로 축소하여 ‘수업’으로 풀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텃밭 가꾸기와 세시풍속은 교사에게 낯설고 어려운 주제가 되어 버리고, 왜 해야 하는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채 의무로 하게 되고, 수업이 아닌 방법으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몰라서 하고 싶지 않는 것들이 됩니다.

생태친화 보육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실천 프로그램의 도입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아동관, 교육을 바라보는 교육관, 교사의 지위와 역할인 교사관, 놀이와 수업의 개념, 어린이집에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 등 보육 철학과 기관 운영의 내용과 방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의 삶과 교사의 삶이 생태친화 보육의 실천을 통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생태친화 보육의 철학과 실천 프로그램들을 하루, 한 달, 일 년의 시간과 어린이집 주변의 환경이라는 공간과 함께 어떻게 엮어갈지에 대한 안내,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 어린이집의 환경과 운영을 어떻게 구성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단, 이러한 안내는 획일화된 안내가 아니라 개별 어린이집이 안고 있는 문제와 현황과 특성들을 고려한 안내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컨설팅의 개념을 적용하여 생태친화 어린이집이 되고자 희망하는 원들에게 그들 원의 현황을 바탕으로 생태적으로 바뀌기 위한 방안들을 찾고 지원할 수 있는 '생태친화 보육 컨설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2 생태친화 보육 컨설팅, 우리가 함께 꾸려갑니다!

1 참여 어린이집 구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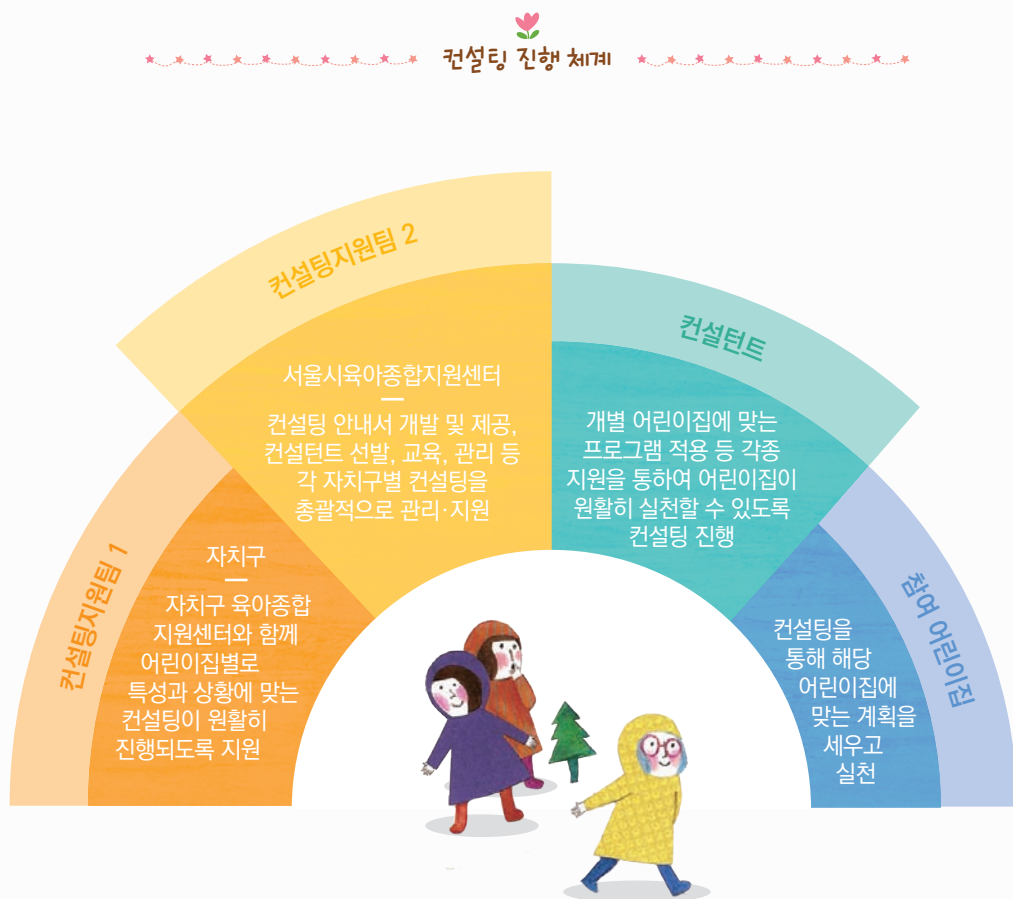
원장 및 교사는 컨설팅의 실제 주체로 컨설팅의 모든 내용을 어린이집에서 직접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사들이 얼마만큼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 정성을 들이느냐에 따라 컨설팅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컨설팅을 시작하는 해는 향후 수년간 이루어질 컨설팅의 기초를 다지는 시기임으로 원장과 교사의 책임감 있는 성실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이해와 협조는 생태친화 어린이집을 만들어나가는 데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며 부모의 적극적 지지는 컨설팅 실제 주체인 원장 및 교사에게 큰 힘이 됩니다.

2 컨설턴트

컨설턴트는 컨설팅 대상 어린이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교류하며 컨설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참여 어린이집이 개별적으로 처한 상황을 바탕으로 변화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보육교직원들과 소통·협력하는 방식으로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컨설턴트들은 컨설턴트 회의를 통해 각 어린이집의 자가진단과 사전진단 결과를 검토하고 적절한 컨설팅 방안을 강구하는 등 컨설팅의 각 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협의합니다.

3. 컨설팅 지원팀 (컨설팅 담당자)

컨설팅 지원팀은 각 자치구별 사업 담당자를 비롯하여 서울시와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 담당자로 구성됩니다. 자치구 사업 담당자는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컨설팅의 모든 과정과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를 지원합니다. 우선 사전·사후방문에 동행하며, 컨설팅 관련 서류와 교육, 협의회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컨설팅 종료 시점에는 컨설턴트와 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담당자는 어린이집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할 컨설턴트의 선발과 교육, 인력관리를 맡아 각 구별 컨설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지원합니다.



3 생태친화 보육 컨설팅, 이렇게 진행합니다!

컨설팅은 준비, 계획, 실천, 마무리의 총 4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는 참여 어린이집, 컨설턴트와 컨설팅 지원팀(컨설팅 관리자, 컨설팅 담당자)의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에서는 생태친화 보육 컨설팅의 각 단계별 참여 어린이집의 준비사항과 세부일정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 생태친화 보육 컨설팅 단계 및 주체별 세부일정 ***

단계	내용	컨설팅 주체		
		참여 어린이집	컨설턴트	컨설팅 지원팀
준비	의뢰와 선정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협의 • 컨설팅 의뢰와 선정	• 사전 준비 회의	• 의뢰서 양식 준비 • 컨설팅 선정 • 담당컨설턴트 배정
	오리엔테이션	• 오리엔테이션 참석	• 오리엔테이션 참석	• 오리엔테이션 및 협약식 개최
계획	진단	• 자가진단 • 컨설턴트 진단 안내	• 컨설턴트 진단 (1차 현장방문) • 자가진단 내용 접수	• 방문일정 확인 • 컨설턴트 진단 동행
	전환방안 모색		• 전환방안 모색 • 실천계획서(안) 작성 • 컨설턴트 회의	• 컨설턴트 회의 개최
	실천계획 수립	• 실천계획서 검토와 확정	• 실천계획서 검토와 확정 (2차 현장방문)	• 기관방문 일정 확인
실천	생태친화 보육전환 실천	• 실천계획 실천 • 생태친화 보육기관 참관 • 실천계획 보완 • 실천보고서 작성 • 원장 세미나 참여 • 교사, 부모 교육 참여	• 월1회 컨설팅 (3차~4차 현장방문) • 실천과정 지원 • 실천계획서 수정과 보완	• 원장·교사의 생태친화 보육기관 참관 진행 • 원장 세미나 진행 • 교사교육 진행 • 부모교육 진행
마무리	컨설팅 되돌아보기	• 만족도 조사 • 실천보고서 마무리	• 마무리 평가 (5차 현장방문) • 컨설팅 성과와 추후과제 검토	• 방문일정 확인 • 만족도 검사 안내 • 마무리 동행
	성장보고회			•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 컨설팅 시기와 주기는 사업 운영에 따라 상이해질 수 있음.

※ 실천계획서(컨설턴트), 실천보고서(참여 어린이집) 양식은 '부록 1'에 수록함.

1 컨설팅 준비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협의 및 컨설팅 의뢰
- 컨설팅 오리엔테이션 참석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부모에게 생태친화 보육 컨설팅에 대한 안내

생태친화 보육 컨설팅은 어린이집 구성원들이 생태친화 보육 컨설팅의 개념과 취지를 이해하고, 컨설팅 참여 여부에 합의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즉,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 부모 등 운영위원회에서 함께 생태친화 어린이집과 컨설팅 사업에 대해 이해하고, 컨설팅 참여 여부에 대해 합의한 후 생태친화 보육 컨설팅을 신청합니다.

컨설팅에 선정된 어린이집의 첫 일정은 컨설팅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생태친화 보육 컨설팅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내용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강의 및 질의응답 형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또한, 협약식을 통해 구성원들이 사업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상호 약속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참여 어린이집은 원의 구성원들에게 생태친화 보육 컨설팅에 참여하는 취지와 내용을 안내하고 공유 합니다. 생태친화 보육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아이 키우기’의 책임이 원장·교사에게만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눈길과 손길, 마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조교사, 조리사, 차량 기사, 부모 등 모두가 컨설팅 사업의 취지와 기본 내용을 공유한다면 이후의 컨설팅 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컨설팅 계획수립

- 생태친화 보육의 이해를 돕는 자가진단
- 어린이집의 삶을 살펴보는 컨설턴트진단
- 자가진단과 컨설턴트진단을 바탕으로 전환방안을 모색하고 구체적 실천계획을 수립

▶ 참여 어린이집의 자가진단

생태친화 보육 컨설팅의 진단은 외부에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만큼 할 수 있겠다’,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는 식의 자가진단의 과정 역시 필요합니다. 참여 어린이집의 구성원들은 자가진단을 통해 생태친화 보육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생태친화 어린이집 자가진단지[서식-1]는 컨설팅 오리엔테이션 당일에 별도 제공되며, 추후 컨설턴트의 컨설팅진단과 취합하여 실천계획서 작성의 토대가 됩니다.

■ 컨설턴트 진단

컨설팅진단은 담당 컨설턴트와 자치구 사업 담당자가 함께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진행됩니다. 2명의 진단자가 함께 진단하는 이유는 보다 포괄적으로 참여 어린이집을 이해하고, 진단과정에서 개입될 수 있는 진단자의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컨설팅진단 일정은 사전에 어린이집과 협의하여 정하며, 아이들이 생활하는 오전 보육시간(09:30~12:30)에 관찰과 면담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방문자는 아이들의 산책에 동행하거나 오전 일과에 참여합니다.

사전 진단과 함께 이 시기에는 원장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생태친화 보육이라는 새로운 보육과정을 실천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세미나는 생태친화 보육에 대해 방법론적 접근뿐만 아니라 철학적 접근도 하도록 안내하는 과정으로 월 1회 진행됩니다.


컨설턴트 진단을 위한
참여 어린이집 준비
및 숙지사항

- 1 당해 연도 운영안내서와 연간 보육계획안
- 2 관찰과정에 필요한 사진촬영(보육환경, 교구 등)에 대한 허가³⁾
- 3 컨설팅 컨설턴트진단은 평가나 지도점검, 감사가 아니므로
컨설턴트 진단을 위한 별도의 준비나 교사의 추가업무는 불필요

■ 실천계획 수립과 안내

자가진단과 컨설턴트진단을 바탕으로 컨설턴트는 개선항목과 컨설팅방안을 모색하여 실천계획서[서식-2]를 작성합니다. 실천계획서가 작성되면, 컨설턴트는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실천계획서에 대해 설명하고 구성원들의 이해를 돕습니다. 이때, 어린이집의 구성원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시간을 활용하며, 방문시간은 사전에 어린이집과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미리 발송된 실천계획서를 컨설턴트의 2차 방문 전에 살펴보고,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하거나 실천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눕니다. 이 과정에서 실천계획서를 각 어린이집에 맞게 조율해 나갑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소통과 대화는 이후의 컨설팅 진행과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3) 사진은 보고서 작성을 위해 촬영되며 사전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3 컨설팅 실행

- 함께 방향성을 논의한 우리 어린이집 생태친화 보육 실천시작
- 담당 컨설턴트 월 1회 방문으로 컨설팅 지원
- 생태친화 보육기관 참관
- 원장 세미나
- 교사 및 부모 교육



실천계획이 정해지면 어린이집의 구성원들에 의한 본격적인 전환 과정이 실천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실천 계획의 내용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실천하며, 그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이나 문제는 담당 컨설턴트와 함께 논의하며 해결해 나갑니다. 이 기간 동안 담당 컨설턴트는 월 1회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현장 컨설팅을 합니다. 컨설턴트는 어린이집 구성원들의 실천 과정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고, 어려움이나 문제점에 대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담당 컨설턴트는 선생님들의 상담자이며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컨설턴트 외에도 컨설팅 지원팀에서는 전환에 도움이 되는 부모교육, 교사교육과 더불어 '생태친화 보육기관 참관'을 진행합니다. 생태친화 보육기관 참관은 보육환경 및 아이들의 생활 모습을 이론이나 말이 아닌 실재를 경험하는 과정으로, 생태친화 보육이 무엇이 다르고 왜 필요한지 깨닫고 우리 어린이집에 무엇을 적용할 수 있는지 도움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원장을 비롯한 어린이집의 전 교사가 순차적으로 참관에 참여하도록 하고 참관보고서[서식-3]를 작성하여, 함께 내용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이는 생태친화 어린이집의 이해를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생태어린이집을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였는데, 컨설팅을 받고 직접 참관을 다니면서 우리 원에 생태친화 보육을 무엇부터 어떻게 도입해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컨설턴트와 평소 궁금한 점, 막혔던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며 함께 해결점을 찾을 수 있어 좋았고, 참관을 하며 생태어린이집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였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이 생겼습니다. 또한 교사 교육을 받으면서 개념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단순히 자연으로 나가는 교육이라 생각했던 생태와 다른, 아이를 있는 그대로 교육하는 자연스러운 생태를 알게 되었습니다.

- 컨설팅 참여 어린이집 교사의 이야기 -

4 🍁 컨설팅 마무리

- 컨설턴트와 참여 어린이집 구성원이 함께하는 마무리 평가
- 컨설팅의 실천과 변화를 기록한 실천보고서 작성
- 성장보고회 참석

컨설팅의 마무리는 컨설턴트와 함께 참여 어린이집 구성원이 컨설팅 전체를 돌아보고, 실천보고서[서식-4]를 작성하면서 컨설팅의 성과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 컨설팅 방문에서 컨설턴트는 참여 어린이집 구성원들과 함께 컨설팅 기간의 실천 내용과 변화를 확인하고 정리합니다. 이 방문에서는 어린이집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컨설턴트와 어린이집 구성원들과의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마지막 방문에서 컨설턴트는 참여 어린이집에 실천보고서의 작성과 제출에 대해 안내합니다. 참여 어린이집은 실천보고서의 작성을 통해 컨설팅 기간 동안의 실천을 되돌아보며, 변화된 교사의 삶과 아이의 삶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를 위해 실천보고서에는 교사와 아이, 부모의 인터뷰 내용이 기술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참여 어린이집은 컨설팅 지원팀이 주최하는 성장보고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성장보고회는 생태친화 어린이집의 성과와 경과를 보고하고 공유하는 자리로서 자치구 관내 어린이집에게 실천 내용을 전파하고, 독려하여 생태친화 보육의 마중물이 되어줄 것입니다. 또한 참여 어린이집의 교사, 원장, 부모, 컨설턴트 등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며 반성과 보완점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은 참여 어린이집의 지속적인 생태친화 보육 실천과 컨설팅 사업의 개선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성장보고회가 끝나면 컨설팅 담당자는 컨설팅 시작과 성장보고회까지의 과정, 각 참여 어린이집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컨설팅을 정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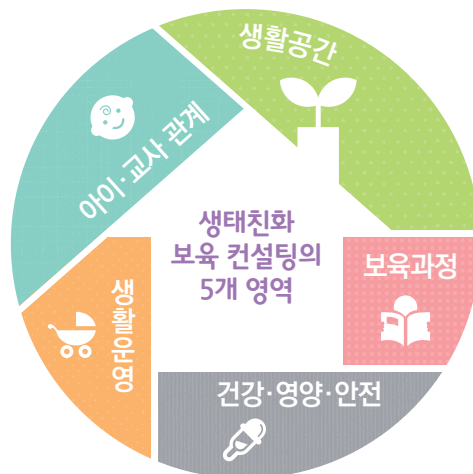


생태친화 어린이집, 이렇게 만듭니다

· 다섯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

이 장에서는 생태친화 어린이집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컨설팅의 5개 영역과 내용에 대해 소개합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컨설팅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부모 및 컨설턴트, 각 자치구의 담당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참여하며 각 어린이집에 대한 진단을 통해 개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공간, 생활, 보육과정, 아이-교사 관계, 건강 및 안전 등 5가지 영역에서 진행합니다. 생활공간, 생활운영, 보육과정, 아이·교사관계, 건강·안전의 5개 영역은 어린이집을 ‘생태적’으로 보기 위한 관점입니다.

공간영역은 놀이와 체험 공간을 확보, 생활영역은 통합 활동 및 아이 중심 활동 구성, 보육과정 영역은 바깥놀이와 텃밭 가꾸기 등 아이들의 보육활동 개선, 아이-교사관계 영역은 업무경감 및 소통 등을 통해 존중하는 문화 확산, 건강·안전영역은 식생활 개선과 스마트폰, 게임기와 같은 전자매체 절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종합적으로 생태친화 보육을 위한 개선을 추진합니다. 우리 어린이집의 익숙한 공간과 운영, 보육과정, 교사·아이의 관계, 건강·영양·안전을 ‘생태친화 보육’의 눈으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 생활공간⁴⁾ : 어린이집은 아이들을 위한 '삶의 공간'입니다.

- 어린이집의 생활공간은 여러 생명들이 더불어 살아 숨 쉬는 공간입니다.
- 어린이집의 생활공간은 우리 아이들의 삶의 공간입니다.
- 어린이집의 생활공간은 교실뿐 아니라, 복도나 홀과 같은 실내 공간, 실외놀이터, 어린이집 주변의 공원이나 산책로, 숲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장소를 포함합니다.
- 어린이집 생활공간은 분리와 차단이 아닌 열림과 소통의 공간입니다.

1 지금 우리 어린이집 어떤가요?

- 창문을 통해 하늘과 주변 풍경을 보며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나요?
- 교재교구나 수납장이 너무 많아 아이들이 놀이하기에 방해가 되지는 않나요?
- 아이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지만,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은 없나요?
- 아이들이 거의 관심을 갖지 않지만, 전시용으로 있는 놀잇감은 없나요?
- 아이들이 싫증내지 않고 가지고 노는 놀잇감은 무엇인가요?
- 아이들이 만지고 경험하는 교재교구·놀잇감·비품의 소재는 자연 친화적인가요?
- 다른 반이나 언니·형·동생들과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장소가 있나요?

실내 공간

- 교사와 아이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바깥놀이터와 산책 장소가 있나요?
- 걸어서 갈 수 있는 가까운 장소에 매일 이용할 수 있는 흙모래 놀이터가 있나요?
- 아이와 교사가 걸어서 갈 수 있는 텃밭이 있나요?
- 아이들은 일상 속에서 텃밭 채소를 가꾸고 그 성장을 관찰할 수 있나요?
- 일 년에 한두 번만 가는 텃밭은 아닌가요?

실외 공간



4) 생태친화 어린이집에서 교육환경 또는 교육공간이라는 용어 대신 생활공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살이 곧 교육'이라는 생태친화 보육의 철학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임재택 외, 2017).

2️⃣ 우리 어린이집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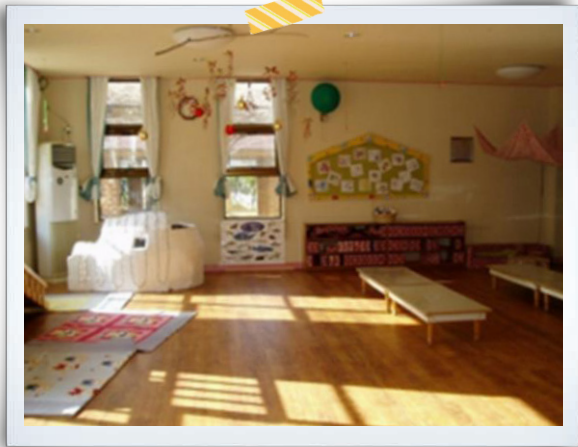
1) 자연채광이 강화된 공간으로

창문은 자연채광과 통풍 등 실내외를 이어주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아이들은 실내에서 창밖을 통해 그날의 햇빛과 날씨,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시간마다 달라지는 그림자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어린이집의 창문에는 시트지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광고를 위해, 혹은 내부부를 들여다 보지 못하도록, 아이들의 시선을 내부에 집중시키기 위해 등 이유는 다양합니다. 시트지가 부착된 창문은 자연 채광은 물론 안과 밖의 여러 소통을 차단합니다. 따라서 컨설팅에서는 시트지를 제거하여 아이들의 공간 속으로 자연 채광이 들어오며, 창문을 열고 닫아 자연 통풍이 되도록 합니다.



“창문을 가릴 필요가 있다면?”

열고 닫을 수 있는 커튼을 달고, 커튼을 달 수 없다면 시트지 보다는 한지를 이용하여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자연도해광이 강화된 보육실은 아이들에게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게 합니다.
또한 놀이공간이 확대되어 아이들은 그 안에서
놀이의 확장과 소통이 가능합니다.

”

2) 놀이 공간의 확대

아이들의 놀이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확장되고, 서로 만나고 어우러집니다. 흥미영역별 교구장으로 구획된 공간은 아이들에게 갑갑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놀이의 확장과 소통을 차단합니다. 특히, 좁은 교실에서는 1~2개의 교구장만으로도 놀이공간이 좁게 느껴지며 흥미영역별 인원 제한이나 놀잇감 이동의 금지와 같은 규칙들은 아이들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컨설팅에서는 교구장의 수를 줄이면서 벽으로 배치하고, 책상은 한쪽 구석으로 옮겨 교실에 넓은 공간이 생기도록 합니다. 이렇게 확대된 놀이공간에서 여러 명이 함께 놀이에 참여하고 다양한 놀잇감이 섞이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상상놀이'로 발전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방안으로 교실에서 발생하던 아이들의 다툼과 불만도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교실이 넓게 변한 게 좋아요. 옛날에는 소꿉놀이할 때 자리가 좁아서 많은 친구들이
함께 놀 수 없었는데, 지금은 모두 함께 소꿉놀이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소꿉놀이하다가
크레파스를 가져와 그림을 그려 벽에 붙이고, 벽돌블록으로 강아지 집도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반 전체가 재미있는 집이 되었어요!

- 컨설팅 참여 어린이집 아이의 이야기 -

3) 친환경 놀잇감이나 소품으로

어린이집의 교재교구·놀잇감·소품은 플라스틱 소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에서는 플라스틱 소재, 우드록이나 부직포, 코팅지의 사용을 줄이고 아이들과 함께 종이나 폐상자로 그릇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과 나무나 천, 형견 등의 자연물 소재의 놀잇감을 늘리는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가능한 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교재나 놀잇감, 벽면구성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데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어린이집의 전체적 분위기도 편안하고 아늑한 느낌이 될 수 있습니다.



“친환경 놀잇감이나 소품으로 어떻게 교체해 가야 하나요?”

- 한 번에 모든 교구와 소품을 교체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차츰 바뀌어나가도록 합니다.
- 우선, 아이들의 놀이를 잘 관찰하여 아이들이 잘 가지고 놀지 않는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놀잇감이나 교재교구, 벽면 구성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하나씩 제거해 갑니다.
- 재활용 상자를 교구바구니로 쓰거나 교체가 어려운 플라스틱 바구니는 천을 씌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집에서 쓰고 남은 식기도구들을 모아 흙 모래놀이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모참여활동이나 아이들과의 활동을 통해 나뭇조각이나 천, 종이, 지끈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자연물 놀잇감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산책에서 주워온 나뭇조각은 살충하여 말린 후 사포질을 하면 좋은 놀잇감이 됩니다.
- 이미 만들어진 놀잇감을 주기보다 아이들이 스스로 놀잇감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재료(상자, 휴지 심, 페트병 뚜껑 등)를 제공합니다.



상점에서 파는 비싼 장난감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모든 자연 소재가 놀잇감이 된다는 걸 아이와 엄마에게도 알게 해 주었어요. 좋은 교재 교구들이 많이 있지만 자연에서 친구들과 뛰어 놀면서 만져 본 자연물을 이용하여 놀잇감을 만들어 가정으로 가져온 아이의 자존감도 높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 컨설팅 참여 어린이집 부모의 이야기 -



처음에는 조금 막막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플라스틱으로 가득 차있던 어린이집 환경이 생태적으로 하나씩 바뀌어 가면서, 내 손으로 만든 천과 나무들로, 어린이집의 모두가 건강해질 것을 생각하니 지금의 도전과 시작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 컨설팅 참여 어린이집 교사의 이야기 -

4) 아이들이 참여하는 벽면구성으로

선생님들은 계절이 변할 때마다 또는 생활주제에 맞추어 환경구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벽면구성에 아이들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컨설팅에서는 선생님이 주도하여 만든 벽면구성보다는 아이들의 작품 위주로 벽면을 구성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실은 아이들이 관심을 두는 공간이 되고 교사의 일은 줄어들게 됩니다.

5) 함께 어울리며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만들기

우리 반, 우리 교실이 익숙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다른 연령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여럿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용공간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평소에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컨설팅에서는 공용공간을 수시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를 제안합니다. 이렇게 재탄생한 공용공간은 여러 연령의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만나고 소통하고 놀이하는 장소가 됩니다.



“

어린이집 내 공용공간은 함께 사용하는 공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연령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일상적 만남과 소통을 통해
자연스럽게 관계의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

6) 생활의 중심을 실내에서 실외로

어린이집 아이들의 생활공간은 실내입니다. 그 중에서도 교실, 흥미영역 안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전시간 산책이나 바깥놀이를 하더라도 30분 정도 어린이집 주변을 한 바퀴 도는 정도의 걷기 위주의 산책이나 짧은 바깥놀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아이들이 좋아하는 바깥놀이를
원하는 만큼 하는 것, 계절과 주변의 변화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산책을 경험하는 것,
모두 생활의 중심이 실외라면 가능합니다.

”

컨설팅에서는 산책 장소, 바깥놀이 등이 아이들 주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오전 산책이 오후에도 가능하고 하루에 2번도 3번도 나가 놀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덕분에 우리 아이들의 생활 중심은 갑갑한 실내가 아닌 탁 트인 실외가 됩니다.



아이가 이전에는 어린이집에서 뭘 했는지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바깥고 나서부터 어린이집에서 했던 것을 재잘재잘 얘기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시장으로 산책 다녀온 이야기, 숲에서 점심 먹은 이야기, 바깥놀이터에서 요리한 이야기 등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보람되고, 뿌듯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 컨설팅 참여 어린이집 부모의 이야기 -

궁금해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의 산책, 바깥놀이 등 외출은 어떻게 하나요?

서울시 미세먼지 정보센터의 대응요령에 따르도록 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일 경우, 외출은 자제하고 실내자유놀이, 몸짓놀이, 생태미술, 손끝놀이, 요리 등의 실내 활동으로 산책과 바깥놀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태친화 어린이집의 구성원과 부모들이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자세는 좀 더 지혜로워야 할 것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의 문제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피해 실외활동을 자제하거나, 마스크를 쓰고 외출하는 것만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평소에 신선한 먹거리를 먹고, 물을 많이 마시고 청결한 습관을 기름으로써 강한 면역력을 키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확실한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와 교사들은 장기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여나갈 수 있는 사회적 대책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가야 할 것입니다. 생태친화 어린이집은 이를 위한 교사 교육과 부모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직결되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생태친화 어린이집으로의 생활공간 바꾸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비용’부터 실천해 보세요.

생태친화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플라스틱 장난감이나 교재·교구, 수납장을 다 버리고, 친환경 놀잇감이나 수납장, 가구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태친화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당장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태친화 보육을 하면서 제일 먼저 ‘비용’을 합니다. 아이들의 놀이에 한계를 만드는 놀잇감과 대형놀이시설의 비용, 교사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환경구성과 수업준비의 비용, 자연채광과 통풍을 방해하는 환경의 비용입니다. 비운 뒤, 하나씩 하나씩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놀이와 아이들이 궁금해 하는 관심거리로 빈 공간을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시간과 공간과 계획의 비용에 있어서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기존에 환경과 놀잇감, 인지적 자극을 위한 교구에 들던 비용이 아이들의 유기농 먹을거리와 교사 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더 배정된다면 비용절감과 동시에 생태전환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에 사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을 극적으로 바꾸는 것이 생태친화 보육은 아닙니다. 생태친화 보육으로의 전환은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신명나게 생활하기에 적합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2 생활운영 : 아이, 교사, 부모가 함께 행복해 집니다.

- 어린이집의 생활은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방향으로 운영됩니다.
- 어린이집의 생활 운영은 공존·상생·조화를 지향합니다.
- 어린이집의 생활운영은 아이·교사·부모가 더불어 행복한 삶을 지향합니다.

1 지금 우리 어린이집 어떤가요?

- 어린이집의 하루는 자연의 순리, 아이들의 생활리듬, 흥미와 관심에 따라 흘러가나요?
- 집단 활동에서 아이들은 주인공인가요?
- 행사가 보여주기 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나요?
- 형이나 동생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 교사들은 생태 보육교사로서 자질과 소양을 배양할 기회를 가지고 있나요?
- 교사회의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 부모는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교사와 협력하고 있나요? 서로 믿고 있나요?

2 우리 어린이집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1) 연령 통합의 기회 확대

컨설팅에서는 여러 반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일상적으로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산책은 동생반과 더불어 가고, 언니, 형은 점심시간 동생 반에 와서 밥 먹기를 돕고 바깥놀이, 요리활동 등은 어린이집 전체가 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다른 연령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어울리는 기회가 많아지고 언니, 형들에게는 동생을 배려하고 보살피면서 책임감과 자신감이 생겨나고, 동생들에게는 언니, 형의 말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것을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연령통합은 기본생활습관지도와 인성교육에 효과적이며, 아이들의 관계가 돈독해지면서 어린이집 생활을 한층 즐겁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교사의 가르침이 아닌 형님, 동생과 함께 어울리며 서로를 배려하는 것을 알고 친구들과 나누며, 친구들과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며 웃고 떠드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생애 어린이집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는 깨달음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의 밝은 표정이, 건강한 생활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행복한 교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컨설팅 참여 어린이집 교사의 이야기 -



혼합연령으로 산책활동을 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린이집에 형제자매가 다니는 가정도 꽤 있는데 등하원시에만 만나는 게 아이들한테는 좀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집에 있을 때는 매일 싸워도 어린이집에서는 우리 동생이야, 우리 오빠야 하면서 산책가고 형제자매가 없는 친구들은 이런 기회에 언니, 오빠와 함께 하는 시간도 갖고 너무나 보기 좋았어요.

- 컨설팅 참여 어린이집 부모의 이야기 -



“영아가 있는 가정어린이집에서도 연령통합이 필요한가요?”

- 영아들도 만 1,2세와 함께 생활하면 배변활동과 같은 변화에 반응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만2세 아이들 팬티 입는 모습을 보고 기저귀를 벗고 자기도 화장실에서 대소변을 보려고 하는 모방행동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 가정어린이집의 적은 인원은 함께 무언가를 하는데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바깥놀이나 산책을 반별로 가지 않고 다 함께 가면 훨씬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으며, 요리활동을 거실 같은 공용공간에서 함께 하기 등은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연령통합 방법입니다.

2) 생태적 역량을 갖추어 나가는 교사교육

컨설팅에서는 참여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생태친화 보육에 관심을 가지고 철학과 실천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연구과정을 제공합니다. 연구는 생태친화 보육의 철학이나 교육과정, 전래놀이나 상자텃밭 가꾸기 등 실질적 실천을 알려주는 워크숍, 생태친화 어린이집 참관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교육의 주인공인 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원내에서 교사들이 희망하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가정과 연계, 부모도 생태친화 보육에 참여하기

본 컨설팅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이 키우는 책임을 어린이집에만 두고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집과 가정이 함께 아이다운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도 함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과 연계한 생태적 삶, 신명나는 아이로 자라기 위해 생태적 부모 되기를 지원합니다. 세시잔치나 요리활동(김치 담그기, 매실 담그기 등), 산책 도우미나 텃밭 가꾸기 등에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며, 일상적으로 보육을 함께하면 연례행사에 초대받는 손님이 아니라, 교사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동반자라는 의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텃밭활동의 연계로 요리활동(김장)을 하고, 또 부모참여수업으로 진행하여 같이 했던 것도 참 좋았어요. 모종심기부터 직접 키우고 수확한 결과물을 이용하여 김장을 하니 더욱 맛있게 느껴지고, 김치를 잘 먹지 않던 아이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너무 흐뭇했고,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가 많이 생겼어요.

- 컨설팅 참여 어린이집 부모의 이야기 -



“

어린이집 행사에 초대되는 손님이 아닌
참여하는 부모로 함께 한다면
생태보육에 대한 이해와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가 높아집니다.

”

3 보육과정 : 잘 먹고, 잘 자고, 잘 노는 아이로 자랍니다.

- 보육과정은 아이들의 삶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 보육과정은 아이들이 잘 먹고, 잘 놀고, 잘 잘 수 있게 하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 생태친화 보육은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생활과 관련짓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 지금 우리 어린이집 어떤가요?

- 보육계획안은 자연과 계절의 변화, 우리 아이들의 생활과 흥미에 따라 계획되어 있나요?
-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나요?
- 바깥놀이와 산책을 좀 더 오래하고 싶지만 다음 일과시간에 맞추기 위해 쫓기듯 교실로 돌아오지는 않나요?
- 보육일지에는 아이들의 생활이 드러나 있나요?
- 활동 목표의 달성여부를 체크하느라 보고 싶은 모습만 보고 있지는 않나요?
- 아이들의 흥미가 어디에 있었는지 일지에 드러나나요?
- 산책과 바깥놀이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나요?
- 안전에 신경 쓰느라 아이들의 자유를 제한하지는 않나요?
- 아이들은 신선한 제철 음식을 먹고 있나요?
- 아이들 스스로의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 생활 속에서 어떤 실천을 하고 있나요?
- 물은 매일 자주 마시나요?
- 하루 생활에서 일회용품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는 않나요?

2 우리 어린이집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 생활주제
- 활동이나 영역 중심의 보육일지
- 형식적인 산책과 바깥놀이
- 일회성 행사로 진행되는 세시풍속
- 수확을 목표로 하는 텃밭 가꾸기



- 계절을 반영한 계획
- 아이들의 생활이 드러나는 보육일지
- 일상이 된 산책과 바깥놀이
- 함께 어울리는 잔치 같은 세시풍속
- 흙을 만나고 과정을 함께하는 텃밭 가꾸기

1) 계절을 반영한 계획

컨설팅에서는 생태친화 보육과정에 따른 보육계획안을 작성하고 실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생태친화 보육과정에서는 자연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의 변화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사계절의 날씨, 나무의 변화 등을 산책과 바깥놀이를 통해 경험하게 되고, 텃밭을 가꾸면서 제철음식을 수확하여 직접 먹어보는 등 사계절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연간계획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와 더불어 지난달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 등이 반영되며, 이 같은 계획은 교사가 아이들에 대해 좀 더 민감하게 살펴보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두웠던 날씨가 따듯해지고, 푸르른 나무잎이 갈색 낙엽으로 바뀌는 계절의 변화는
아이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가깝게 경험할 수 있는 흥미거리입니다.”

2) 아이들의 생활이 드러나는 보육일지로

컨설팅에서는 참여 어린이집에서 기존에 작성하고 있던 활동과 누리과정의 영역 중심의 보육일지 대신에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생활과 놀이의 모습을 기록할 수 있는 보육일지를 작성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주간이나 일일보육계획안의 계획된 활동에 따라 하루의 일과를 평가하는 방식이 아닌, 그 날의 아이들의 관심과 흥미가 어떤 놀이나 활동에 있었는지, 아이들이 흥미로워했던 구체적인 모습을 남기는 보육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보육일지는 교사가 아이들의 모습을 보다 잘 관찰하고 이해하며, 이를 다음날의 보육에 반영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기록이 됩니다.

3) 일상이 된 산책과 바깥놀이

컨설팅을 통해 어린이집의 산책은 걷기 중심의 산책에서 놀기 위한 산책으로 변화합니다. 산책의 주된 목적이 달라지자, 산책시간이 길어지고 복장과 준비물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의 신발이 슬리퍼나 구두에서 운동화로 바뀌었고, 긴 시간 야외에서 지내기에 적합한 모자와 개인 물병을 가지고 산책에 나서게 됩니다. 아이들은 산책에 나가서 놀기 위해 놀잇감을 챙기고, 돌멩이나 솔방울 등을 주워 담을 수 있는 산책 주머니를 가지고 산책에 나서게 됩니다. 또한 많은 아이들이 어울려 노는 전래놀이를 자주 하게 되면서 아이들의 관계가 좋아지니 더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산책을 나가기보다 원내 놀이터에서 놀이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였고, 같은 반이지만 개월 수 차이가 많아서 밖에 나가는 것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네 한 바퀴, 동네 두 바퀴 그리고 조금씩 원에서 멀리 산책을 시도하여 2주 후에는 숲까지 걸어가서 걸어오기까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비가 내리고, 햇볕이 뜨거워도 산에 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생태교육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산책 후에는 아이들이 점심을 너무 잘 먹어서 일거양득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이들과 교사 모두 몸과 마음이 맑아지는 치유의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 컨설팅 참여 어린이집 교사의 이야기 -



주변에 자연환경과 바깥놀이터가 없는 어린이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어린이집 주변에 자연환경이 풍부하거나, 바깥놀이터가 마련되어 있다면 사시사철 아침, 점심, 저녁 또는 온종일 바깥놀이와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 속에 위치한 어린이집의 경우 이러한 제반 환경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산책과 바깥놀이가 어떤 것인지에 있습니다. 산책과 바깥놀이는 어린이집 밖으로 나가 아이들에게 바람과 비, 햇살과 나무, 사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험입니다.
- 따라서 산책과 바깥놀이는 실내가 아닌 실외라면 어디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이집 주변에 있는 동네 놀이터, 초·중·고, 대학의 운동장도 좋은 놀이터가 될 수 있으며, 공원이나 산, 들, 숲 등도 신나는 놀이터가 됩니다. 혹, 어린이집의 옥상에 넓은 공간이 있다면 좋은 바깥놀이터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교사는 어린이집 주변의 골목길의 작은 텃밭이나 놀이터 등을 사전답사하고 가볼만한 장소와 그 장소의 특징을 익혀두면 좋습니다. 다양한 장소보다는 같은 장소를 반복해서 가는 것이 자연의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아이들에게는 더 좋습니다.⁵⁾
- 한편 서울시에서는 어린이집의 부족한 야외놀이공간을 지원하기 위해서 ‘유아숲체험원’ (52개소), ‘유아동네숲터’ (199개소), ‘태양의 놀이터’ (에너지드림센터), ‘시민자연학습장’ (농업기술센터) 등 서울시 유관시설이나 프로그램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숲 체험을 위한 ‘유아숲체험원’은 연간 사전신청을 하면 정기적으로 유아숲체험원을 이용할 수 있고, 체험원에 상주하는 유아숲지도사에 의해 다양한 숲체험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와 교사가 함께 산책을 실천한 사례 6)

꼬물꼬물 개구리 알 탐색하기 | 경칩이 되면 개구리 알이 연못에 나타난다. 개구리 알을 발견한 아이들은 개구리 알이 나왔다고 환호성을 지른다. 이번엔 반딧불이 연못에서 귀한 도롱뇽 알도 발견해서 더욱 들뜬 아이들이다. 개구리 알을 보고 난 후 매일 연못에 가보자고 한다. 올챙이를 통에 담아 와서 교실에서 관찰해보다가 다음날 다시 연못에 풀어주기도 하며 한 달 내내 올챙이, 개구리를 만나는 재미로 살아가는 아이들이다.



우와, 신기해! 벌레 살펴보기 | 여름이 되면 나뭇잎에 애벌레와 무당벌레 등 많은 벌레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아이들은 무심코 지나치지 않고 나뭇잎을 꼼꼼히 탐색한다. 나뭇잎에 붙어 있는 애벌레와 각종 곤충을 발견하고 신기해하며 확대경으로 자세하게 보기위해 집중한다. 개나리잎벌레의 똥도 살펴보고, 무당벌레가 날아오를 때 날갯짓도 자세하게 들여다본다. 살아있는 생명은 다 소중하다는 것을 산책을 통해 자연스럽게 느껴보는 소중한 시간들이다.

주르륵, 주르륵 비가 오면 | 우산을 쓰고 빗소리를 들어보거나 비 오는 숲속을 거닐어 보기에 우리 아이들은 비가 오는 날이면 더 신이 난다. 그렇기에 비오는 날이라도 바깥 놀이를 못할 것이라는 걱정 없이 등원한다. 물로 하는 놀이를 좋아하는 아이들인데 하늘에서 물이 내려오니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평소 다니던 나들이 길도 풀내음이 달라지고 나뭇잎에 맺힌 빗방울, 슬금슬금 기어다니는 달팽이, 지렁이들을 만나며 새로운 풍경을 눈에 담는다. 비온 뒤 젖은 땅을 맨발로 걸어보며 오롯이 자연을 느낀다.



아이~추워 겨울 산책 | 겨울이 되면 아이들은 옷을 따뜻하게 입고 겨울 산책을 나간다. 날씨가 너무 추워도 아이들은 추운 줄 모르고 산책이 마냥 신난다. 눈이 와 하얗게 변한 산의 모습은 아이들에게 계절이 또 바뀌었음을 알려준다. 추운 날씨에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이 쾅쾅 얼어 얼음이 된 모습도 구경해보고, 나뭇잎이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는 나무도 만나보며 겨울을 잘 이기고 봄에 만나자며 이야기도 해본다.



아이와 교사가 함께 바깥놀이를 실천한 사례 7

바깥놀이

토란 토란 우산놀이 | 밭에 심어져 있는 큰 나뭇잎 이름은 무엇인지 물으며 토란잎을 손으로 탐색하고 관심을 갖는다. 텃밭에 심어 놓았던 토란을 수확하는 날. 토란잎을 자른 토란대로 우산 놀이를 하거나 햇빛을 가리며 자유롭게 놀이한다. 물뿌리개로 비를 만들어 토란대 우산 아래로 들어가 본다. 물이 안 빠져 나가게 토란잎을 오므려 보기도 하고 토란잎으로 게임도 하고 토란잎 위를 토르르 굴러가는 물의 움직임도 탐색해보는 놀이가 즐겁기만 하다.



철썩, 철썩 진흙놀이 |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놀잇감은 무궁무진하다. 그 중에 아이들의 오감을 만족시키면서 놀이할 수 있는 것의 으뜸은 진흙이 아닐까 싶다. 처음에는 흙이 더러운 것이라는 생각도 있고 진흙의 미끌미끌한 감촉에 놀이하는 것을 망설이기도 한다. 망설이는 모습을 인정해주고 진흙을 콕콕 찌러보거나 그림그리기, 손도장 찍기 등을 해본다. 천천히 진흙과 친해질 수 있도록 시간을 주니 어느새 아이들은 진흙을 가지고 온몸으로 놀이한다.

알록달록 단풍, 낙엽놀이 | 어린이집 뒤로 초안산이 있어 자연의 변화를 옆에서 바로 느낄 수 있다. 자연은 계속해서 변하지만 눈에 띄게 변하는 때가 바로 단풍이 들어가는 가을이다. 나뭇잎은 어느 계절에도 즐겁게 놀이할 수 있는 매개체이지만 가을 단풍과 낙엽은 자연만이 나타낼 수 있는 색, 흐름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알록달록한 단풍 잎으로 꽃을 만들어보고 색깔별로 구분해본다. 낙엽이 지면 산을 오르며 밭에 밟히는 소리에 즐겁고 낙엽이불, 낙엽비 등 다채롭게 아이들만의 방법으로 놀이하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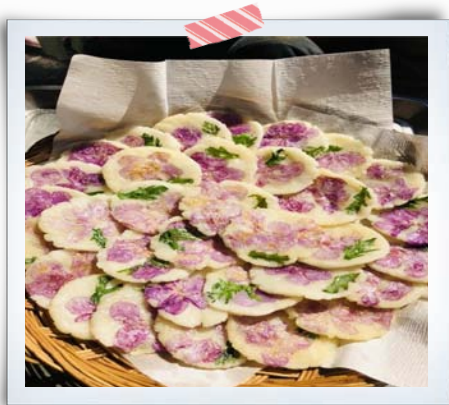
신나는 흙놀이 | 아이들은 흙을 통해 무한한 창의성을 발휘한다. 크레파스와 종이가 없어도 펼쳐진 흙 위에 손가락으로 재미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집에서 안쓰는 주방 도구를 가져와 소꿉놀이도 함께 할 수 있다. 흙이 물을 만나면 더욱더 아이들은 신이 난다. 흙으로 물길을 만들어 그 위에 배를 띄우고, 흙을 뭉쳐 내가 좋아하는 모양을 만들기도 한다. 높은 동산에서의 흙 비탈길에는 포대자루를 이용하여 신나게 미끄럼을 탄다. 놀이터에 미끄럼틀이 있어도, 흙미끄럼 타러가자고 아이들은 선생님을 조른다.



4)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놀이 - 잔치로 푸는 세시풍속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기르는 것과 생명과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생활과 관련짓는 태도를 기르는 것은 아이들의 삶 속에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봄을 알리는 입춘, 낮이 가장 긴 하지 등 ‘24절기’를 통해서 계절의 변화를 파악하고 중요한 절기마다 다양한 공동체 행사, 즉 세시풍속을 통해 자연의 변화에 지혜롭게 적응하고 지친 일상에서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설날에 세배를 하고 윷놀이를 하며 추석에 송편을 빚고 달맞이를 하는 것 등이 그러한 예입니다. 이처럼 세시풍속은 아이들로 하여금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잘 느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으며, 세시풍속으로 행해지는 다양한 놀이는 아이들이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바깥놀이의 좋은 소재가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추석과 설날 외의 세시풍속은 낯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삼월삼짇날이나 유두, 한식과 같은 우리 전통의 세시는 어린이집에서는 접한 적이 없는 생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시에 익숙하지 않은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조부모님들을 세시 선생님이로 초대할 수 있고, 주변 노인복지관이나 시니어센터를 통해 어르신들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세대 간 교류 및 전통의 문화를 배워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세시와 절기를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절 위주로 실천해 오던 어린이집에서는 설, 추석과 더불어 삼월삼짇날, 단오, 동지같이 익숙한 것부터 한 해 한 해 실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세시를 푸는 방식은 ‘잔치처럼’입니다. 절기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 형태가 아니라 아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어울리며 먹고, 놀고, 즐길 수 있는 잔치 한마당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아들도 무리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영아들이 많은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부모들이 함께 모여 씨름을 하면 아이들은 응원을 할 수도 있고, 진달래 화전을 부치면 아이들은 웅기종기 앉아서 먹기만

해도 좋습니다. 어른들이 참여하는 세시잔치라도 아이들은 보고, 듣고, 먹고, 놀며 그 날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네 잔치에서 아이들의 역할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매년 쌓이면 아이들은 진달래가 피고, 쑥이 자랄 때면 “아.. 봄이구나..”, “곧 화전을 먹는 날이 오는구나”, “그날은 제비가 돌아오는 날이지” 하고 떠올리고, 쑥을 보며 단옷날 쑥주머니를 만든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추석잔치 때 직접 손으로 빚어 만들고 아궁이에 불을 때서 찌먹는 송편 맛은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릴 때 엄마와 같이 송편을 만들던 기억도 되살아나기도 했어요. 어린이집 영향으로 봄날 주말이면 아이들과 산책을 가서 진달래를 뜯어와 화전을 부쳐 먹기도 해요.

- 컨설팅 참여 어린이집 부모의 이야기 8 -



5) 흙을 만나고 손을 쓰는 텃밭 가꾸기

많은 어린이집에서 텃밭활동을 어린이집의 보육과정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텃밭 가꾸기가 아이들이 주인이 되기보다 아이들이 씨앗을 심고, 이후 교사나 다른 어른이 대신 가꾸어 주면, 아이들은 수확만 하는 형식적인 행사와 같은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컨설팅에서는 아이들이 텃밭활동의 모든 과정을 함께 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발 일구기부터 씨앗심기, 물주기, 잡초 뽑기, 그리고 수확 등 모든 과정을 아이들이 직접 손으로 흙을 만지고 노작의 기쁨을 알게 해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이와 교사가 함께 텃밭을 가꾼 사례⁹⁾

이달의 농부들



하~ 농사짓기 힘드네.

바깥놀이터 한 칸에 있는 텃밭을 보았나요? 저희 어울림반 친구들이 텃밭의 흙을 뒤집으며 텃밭 가꾸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텃밭의 작물은 무엇을 할지 고를 때, 우리의 아이들은 당당하게 '고추요!'라고 이야기를 하였지요. 과연 우리 어울림반 아이들이 고추를 열심히 키워서 먹을 수 있을까요? 호기롭게 시작된 팽이질과 삽질 10분도 되지 않아 지친 아이들. 표정에서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여긴 어디인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텃밭을 뒤집고는 '나 이제 잘 먹을 거예요.'라며 농사의 소중함을 이렇게 몸소 느껴보았습니다. 3월 텃밭의 흙을 뒤집으며 거름을 섞을 때 텃밭의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작물 잘 키워봅시다!

모종심기와 씨뿌리기

3월에 땅을 뒤집고, 비료를 뿌리고 4월에는 영양분이 가득한 텃밭에 텃밭 친구들을 심어주었습니다. 상추, 쪽갓, 방울토마토, 해바라기, 봉선화, 브로콜리, 강낭콩! 모종을 다 심고 손에는 씨를 받아 들고 흠뻑려주곤, 잘 자라라고 토닥 토닥 - 몇 주 뒤, 비가 온 어느 다음날 아이들과 텃밭 구경을 갔더니 아이들 손톱만 한 싹이 났어요. 어울림도 신기한지 싹을 토닥이며 '더 잘 자라.'라며 신기해했지요. 4월은 미세먼지가 심해 텃밭에 자주 가지 못하였지만, 틈틈이 텃밭에 갈 때마다 싹이 쑥쑥 자라는 것을 보자 아이들도 신기해하고 텃밭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관심과 애정이 가득히 맺힐길 기대하며 - 쑥쑥 자라라!



9) 본 책자에 실린 사례는 해운대구 아이랑 어린이집의 학급신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텃밭이 없는 어린이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도심 속에 위치한 어린이집의 경우, 주변에 텃밭 가꾸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텃밭 가꾸기는 비옥한 땅에 맑은 공기, 따사로운 햇볕, 깨끗한 물 등 다양한 자연조건이 마련되었을 때 가장 좋으나,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해서 텃밭 가꾸기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어린이집의 여건에 맞춰 충분히 텃밭 가꾸기를 할 수 있습니다.¹⁰⁾
- 인근의 자연학습장, 농장, 또는 원 주변의 땅이나 가까운 지역의 밭을 임대하거나 또는 주말농장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작물을 가꾸는 경험을 맛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입구나 복도, 또는 보육실 안에 여러 가지 작물을 작은 화분 또는 수경재배를 통해 키울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공간과 방법으로 텃밭 가꾸기를 실시한 사례입니다.
 - ① 어린이집 옥상 또는 베란다에 텃밭 조성하기
 - ② 담장이나 울타리 밑에 호박, 완두, 조롱박, 수세미와 같은 덩굴 채소 가꾸기
 - ③ 어린이집 입구나 복도의 가장자리, 창가에 다양한 용기(폐품 등 활용)로 작물 가꾸기
 - ④ 수경재배(영양액을 첨가한 물에서 토양 없이 식물을 키우는 방법)로 작물 가꾸기
 - ⑤ 어린이집 인근 농장과 연계한 텃밭 가꾸기
 - ⑥ 원 주변의 땅이나 가까운 지역의 밭을 임대하여 주기적 방문을 통한 텃밭 가꾸기
- 한편 서울시는 2012년부터 도시농업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투리텃밭, 옥상텃밭, 상자텃밭을 조성하여 분양하는 것 외에도 아파트 단지 내 텃밭 조성, 어린이집 주변의 땅을 이용한 텃밭 조성도 가능하므로 자치구청 도시농업 담당 부서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요~!



영아들도 생태친화 보육이 가능할까요?

시원한 공기와 따스한 햇살은 영아에게 더 필요합니다.

생태친화 보육은 전 연령에서 가능하지만, 오히려 영아들의 경우 생태친화 보육의 긍정적 효과가 더 잘 나타나고 더 빨리 나타납니다. 영아들도 시원한 공기와 따뜻한 햇살을 즐길 수 있고 더 필요합니다. 밖으로 나가 흙을 가지고 놀기를 즐기며 벌레에 관심을 가지며 좋아합니다. 또한 요리나 몸짓놀이, 전래놀이, 텃밭 가꾸기 등 언니, 형아들과 연령통합 활동을 하면서 즐거워하고 자연스럽게 배움이 일어납니다. 생태친화 보육은 영아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생태친화 보육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도 들었는데, 좀 더 이른 시기에 유기농 식품, 채소, 과일 위주 식단에 노출되고, 실외 활동을 많이 해서 인지 식습관 유지도 훨씬 쉽고, 장난감 없이도 놀 줄 아는 아이가 되었어요. 큰 애와 비교해보면 큰 애는 기존에 하던걸 다르게 바꾸는 거였다면 작은애는 처음부터 이렇게 놀아서 그런지 훨씬 효과가 빠르고 쉽게 적응 하는 거 같아요.

- 컨설팅 참여 어린이집 부모의 이야기 -



실외 활동으로 자연을 접하니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밖에서도 영아들 스스로 탐색하며 활동하다보니 더 씩씩해지고 자신감이 높아진 것 같아요.

- 컨설팅 참여 어린이집 교사의 이야기 -

4 아이·교사관계 :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 어린이집에서 아이·교사 관계는 사랑과 정성을 바탕으로 한 수평한 관계입니다.
- 어린이집 교사는 아이 안에 무한한 잠재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지금 우리 어린이집 어떤가요?

- 아이들은 활기차고 밝은 모습으로 생활하나요?
- 아이들의 웃음소리, 재잘거리는 소리가 어린이집에 가득한가요?
- 아이들은 교사를 좋아하고 믿고 따르나요?
- 교사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대하고 있나요?
- 교사들의 모습은 전체적으로 밝고 활기찬가요?

2 우리 어린이집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1) 신나고 활기찬 아이들

컨설팅 이후 어린이집의 일과와 교육내용이 달라지면서 제일 먼저 아이들의 표정이 바뀝니다. 컨설팅에 참여한 어린이집의 교사와 부모들은 아이들이 더 밝아졌고 활기차고 즐거워졌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놀기 위해 다니게 되면서, 무엇보다 어린이집에 오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매일 밖에 나가서 자연을 접하며, 손발을 자유롭게 쓰고, 좋아하는 친구들과 마음껏 노는 시간들을 통해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감정표현이 풍부해지고 더 건강해집니다.



아이들의 손으로 직접 주워온 자연물로 교사와 아이들이 직접 환경을 구성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형이랑 동생이랑 어울려 함께 식사하고 놀이하면서 행복해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교사로서 감동 그 자체였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어린이집, 마음껏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어린이집, 아이다움을 인정해주고 생태적 환경으로 만들어진 안정감 있는 생태 어린이집으로의 과정은 교사·아이 모두에게 행복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시간이었다.

- 컨설팅 참여 어린이집 교사의 이야기 -



아이다움을 인정하고 교사가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함께 놀아주고 생태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럴 때 아이들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컨설팅 참여 어린이집 교사의 이야기 -

2) 행복해진 교사

많은 교사들이 컨설팅을 하는 동안 교사로서 가졌던 초심이 되살아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새롭게 보이고 더 사랑스러워졌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달라지면서 교사들은 교사로서의 보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컨설팅 전에는 전 연령이 어울리는 경우가 거의 없고 다른 반 교사들과도 같이 하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생태친화 보육을 하면서 공간의 벽이 무너지고 다른 반 선생님이나 아이들과도 같이 어울리다 보니 선생님들 관계가 돈독해졌어요. 생태컨설팅 후, 원장 선생님 이하 전 교직원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많아져 소통이 활발해졌고 어린이집 생활이 더 즐거워졌습니다.

- 컨설팅 참여 어린이집 교사의 이야기 -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원장인 저 역시 행복했습니다. 기존에도 많은 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왔지만 왜 이번에 이런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았습니다. 제가 찾은 답은 생태친화 보육이 아이들이 아이답게 자라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아이답게, 교사는 교사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각각의 본연의 특성을 살리는 교육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컨설팅 받으며 올해는 배우느라 바빴습니다. 내년에는 배운 부분에 대해 현장의 삶에 더 많이 적용해보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 컨설팅 참여 어린이집 원장의 이야기 -





“

행복한 교사와 아이,
생태친화어린이집이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



생태친화 보육 컨설팅에 참여하면 교사의 업무가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요?

교사의 업무는 오히려 줄어든 수 있습니다.

생태친화 보육의 철학에 따라 보육을 실천한다면 교사의 업무는 결코 늘어나지 않으며 오히려 줄어듭니다. 기존의 보육과정을 생태친화적으로 바꾸기 위해 교사교육이 늘어나고 새로운 시도와 고민들을 시작해야 하므로 업무가 늘어날 것이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태친화 어린이집 교사는 매일 수업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며, 아이들의 손에 쥐여주기 위해, 부모에게 보여주기 위해 작품을 만들거나 벽면을 꾸미는 일이 줄어듭니다.

각 원의 실정에 맞추어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을 줄여나가다 보면 생태친화 보육의 산책, 텃밭 가꾸기, 세시잔치, 손끝놀이, 몸짓놀이 등을 하나씩 실천할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활동들을 익히고 배우는 것이 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들이 좋아하게 되고 생활이 되고 익숙해지면 생태친화 보육이 훨씬 편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궁금해요~!

5 건강·안전 : 아이의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 아이가 건강하다는 것은 면역력이 강한 것입니다.
- 건강한 아이는 바른 의식주(衣食住) 생활을 합니다.
- 아이를 안전하게 지키려면 일상 속에서 스스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1 지금 우리 어린이집 어떤가요?

- 어린이집 구성원들은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어떤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나요?
- 우리 어린이집 구성원들은 탄산음료나 주스보다 생수 마시기를 생활화하고 있나요?
- 우리 어린이집은 전자파 및 유해물질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나요?
- 우리 어린이집은 제철음식과 전통음식 위주의 식단을 구성하고 있나요?
-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자주 먹고 있나요?
-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설거지나 청소, 소독 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있나요?

2 우리 어린이집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1) 건강한 식재료로 식단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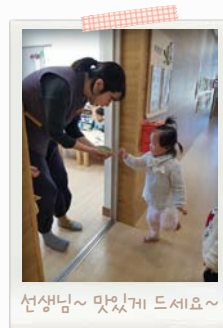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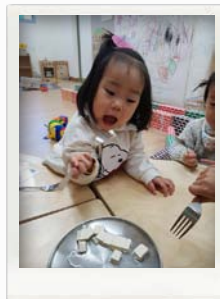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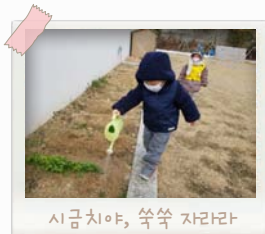
식재료의 오염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생태친화 보육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능한 친환경이나 유기농으로 재배된 건강한 식재료, 수입된 재료가 아닌 안전한 국산 식재료, 근거리 재료인 로컬푸드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음식의 조리과정도 중요합니다. 완제품을 구입하여 제공하거나 즉석식품과 패스트푸드 음식을 지양하고, 시간과 정성이 들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교육의 과정임을 인식하고 건강한 슬로푸드 위주의 식단을 구성하도록 합니다.

아이와 교사가 함께 식생활을 바꾼 사례 11)

텃밭가꾸기와 식생활교육 · 시금치두부된장무침

튼튼이가 열심히 물 주고 가꾸었던 시금치를 캐서 튼튼 최애반찬인 두부와 함께 무쳐
'시금치두부된장무침'을 만들었어요.

오전에 시금치를 데려와 불에 담아 '이게 뭘까?' 물으니 '상추'라고 대답하는 튼튼이^^
시금치 데치고 두부 데치고~ 데친 두부를 시식도 해보고 손으로 누르며 직접 으깨어 봤어요.
된장과 참기름으로 간을 하고 선생님들께 나누어 드리고 우리도 밥반찬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친환경, 유기농 식재료 구입이 번거롭고 비용이 부담되어요...

- 생태적 먹을거리를 위해선 생태적 식재료를 구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시에서는 11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을 통해 자치구와 산지 지방자치단체를 일대일로 연결, 어린이집에서 안전한 친환경 식재료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모든 자치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하는 어린이집에는 원아 1인당 한 끼 식단에 500원(월 평균 약 1만원)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참고〉

-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내용
 - ① 친환경 식재료 차액지원 : 어린이집 원아 1인당 한 끼 식단에 500원 지원
 - ② 식재료 배송비 지원 : 산지 지자체와 서울시의 배송비 지원으로 무료배송 실시
 - ③ 3단계 안전성 검사 : 생산, 유통, 소비단계별 안전성 검사를 실시(방사능, GMO FREE 등)
 - ④ 생산지 체험프로그램 운영 : 각 자치구에서 지정한 산지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생산지와 어린이집 간 상호교류 기회 제공
- 참여 자치구 : 11개 자치구(강동구, 금천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서대문구, 동작구, 은평구, 중랑구, 송파구, 2022년까지 모든 자치구로 순차적 확대)
- 신청방법 :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http://donong.seoul.go.kr>) 홈페이지

2) 스마트폰, 게임기 등 전자매체 절제

요즘 아이 키우는 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은 스마트기기, 컴퓨터 등 전자매체의 과잉사용과 어린시기 노출에 관한 것들입니다. 전자매체는 전자파와 유해물질이 가득해 성장기 아이들에게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어린이집과 함께 아이들이 전자매체 사용을 절제할 수 있는 방법과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컨설팅에서는 이와 관련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교실 내 TV나 컴퓨터, 휴대전화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예시”

- TV 또는 컴퓨터 사용하지 않을 때 천으로 덮개 씌우기
- 아이와 함께 있을 때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기
- 어린이집과 가정이 연계하여 ‘TV, 스마트폰 보지 않는 날’ 만들기



아이가 일상에서 전자매체를 너무 많이 접하는 것 같아 걱정이었었는데 어린이집에서부터 전자매체 사용을 절제하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전자매체 위험성에 대한 가정통신문과 TV 없는 날 등을 어린이집과 함께 실천하다보니, 어린이집 학부모 사이에서도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함께 있을 때는 서로 조심하고, 아이 스스로도 스마트폰을 많이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 컨설팅 참여 어린이집 부모의 이야기 -



생태친화 보육 8가지 실천사항



생태친화 보육을 위해
어린이집과 가정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실천해 볼 수 있는 것들



실천 ① 자연과 함께 맘껏 놀기

- 충분한 놀이를 할 수 있는 놀이 중심 보육
- 시간, 공간(놀이영역, 실내·외)의 활용이 자유로운 놀이
- 자연의 순리에 따른 생태놀이 (계절놀이, 손끝놀이, 전래놀이 등)



실천 ② 바깥에서 신나게 놀기

- 산책, 텃밭활동, 바깥놀이
- 교실 밖 지역사회와의 관계 맺기



실천 ③ 여유 있고 편안한 하루 보내기

- 융통성 있고 여유로운 일과 운영
- 영유아와 교사가 바쁘지 않은 하루 보내기



실천 ④ 건강한 먹거리로 즐겁게 먹기

- 건강하고 바른 먹거리
- 즐겁게 식사하기



실천 ⑤ 자연친화적인 보육공간 만들기

- 생태적 환경으로 개선
- 플라스틱, 비닐보다 나무, 종이, 형깃 등 활용



실천 ⑥ 함께 어울려 생활하기

- 언니, 형, 동생이 함께 놀고 생활하는 보육
- 연령통합(영아·유아 가능 연령), 세대통합(영유아-어르신)
- 스마트폰, 게임기 등 전자매체 적게 이용하기



실천 ⑦ 참여하며 함께 키우기

- 운영위원회 활성화(민주적 운영)
- 보육교직원의 조직문화 개선(적극적 참여)
- 등하원시 보육실까지 개방하기



실천 ⑧ 안정적인 근무환경 만들기

- 보육교직원 근무여건 개선
- 업무간소화



생태친화 보육 컨설팅 사례

여기서는 앞서 소개한 다섯 가지 영역에서의 생태친화 보육 컨설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실제로 컨설팅에 참여한 한 가정어린이집의 진행과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생활공간의 변화

전환방향 1

가정집 같은 편안한 분위기 조성하기

오래되고 낡은 우레탄 소재 매트
및 보육실과 거실의 시트지 제거 제안

A어린이집을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원색의 우레탄 소재 매트가 깔린 거실이었다. 조화와 코팅된 종이로 가려진 교실 앞 창문과 시트지로 도배된 베란다 창은 자연채광을 가렸고, 아이들의 피부와 호흡기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5년 이상 된 낡은 우레탄 재질로 바닥마감이 되어 있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깔았다는 우레탄 제거를 처음 제안하였을 때는 반신반의 하셨지만, 오래된 우레탄이 아이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고 난 뒤 교체에 동의하셨다. 우레탄 대신 친환경 소재의 장판이 들어오고, 창문의 시트지가 제거된 후, 이전보다 훨씬 따뜻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변화 후 어린이집을 방문한 부모들은 “아늑하고, 집 같아서 아이들이 좋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환경을 변화하는 원장님의 배려가 부모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변화 전



변화 후





전환방향 2	아이들 이야기로 게시판 꾸미기	활동지 위주의 획일화된 벽면구성 벗어나기 제안
--------	------------------	---------------------------

영아보육시설인 A어린이집은 교실벽면을 획일적인 활동지 위주로 구성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아이들은 그 공간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교사가 준비한 활동지를 이용한 활동에도 즐겁게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교사들에게 다양한 표현재료를 안내하고 영아들 공동작품의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면서 아이들 이야기로 게시판을 꾸미기를 제안하였다. 그 뒤에는 훨씬 생동감 넘치고 자연스러운 교실 공간으로 변화되었고, 아이들 역시 자신의 작품 앞에서 재잘대고 예술 놀이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전환방향 3	친환경 놀잇감 비율 높이기	낡고 손상된 플라스틱 교구 버리기, 놀잇감 만들기 제안
--------	----------------	--------------------------------

A어린이집의 놀잇감은 판매되는 교구의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교구들은 플라스틱이나 고무 재질로 만들어져 놀잇감을 수시로 입으로 가져가는 영아들에게 환경호르몬에 노출되는 위험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영아의 흥미와는 상관없이 너무 많은 교구들이 있어 교사가 정리하는데 많은 노력을 쏟고 있는 점도 관찰과정에서 드러났다. 전체 놀잇감을 친환경으로 한 번에 교체하기는 힘들다는 어린이집의 요구와 현실에 맞추어 낡고 손상된 플라스틱 교구를 정리하고, 천이나 나무소재, 자연물, 가정에서 사용하던 물품 등 친환경 놀잇감의 비율을 높여갔다. 부모참여로 놀잇감 만들기를 진행하였는데, 선생님과 엄마가 만든 한지종이그릇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잇감이 되었다.



2 보육과정의 변화

전환방향 1	아이의 흥미와 관심에 기초한 보육과정으로 변화	놀이중심 보육, 활동지 벗어나기 제한
--------	---------------------------	----------------------

만 0세~2세가 생활하는 A어린이집의 일과는 주제에 따라 보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었다. 교사는 주제중심 보육과정을 활동지를 이용하여 진행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일과 중 산책과 바깥놀이를 하고는 있지만, 아이들도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컨설팅 과정에서 아이들이 즐거워하지 않는 활동지를 없애고, 오전시간은 교사주도의 수업이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산책, 바깥놀이를 제한하였다. 이를 실천한 교사들은 영아들이 이렇게 놀이에 몰입할 수 있고, 자유롭게 자연을 탐색하는 모습이 새삼 놀랍다고 하였다.



전환방향 2

계절의 변화에 따른 보육과정으로 변화

월별 주제중심 보육을 사계절로 크게 보기

아파트 1층에 위치한 A어린이집은 단지 인근에 다양한 산책 장소가 있었다. 특히 각 장소마다 다양한 나무와 식물들이 있어 아이들이 계절의 변화를 오감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 이를 보육과정에 활용해 보기를 원했다. 전체 보육과정을 변경하는 것을 어렵게 여겨, 우선 1년 산책 계획을 함께 작성해보았다. 계절별로 보육과정을 구성하면, 이후 절기나 세시풍속 또한 쉽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전환방향 3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보육과정으로 변화

부모 자원봉사, 공동체 행사 제안

컨설팅 과정에서 교사들의 가장 큰 반대에 부딪힌 일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보육과정의 실천이었다. 부모가 아이들의 삶에 자주 참여하다보면 어린이집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이러한 과정이 누적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뢰가 쌓인다는 컨설턴트의 이야기에 교사들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부모가 감시자나 관리자로 참여함이 아님을 강조하며 여러 번 설득 끝에 식사지도, 놀잇감 만들기 자원봉사, 주말 나들이 등으로 점차 부모와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교사와 함께 돌보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얼마나 힘든지 직접 경험하게 되었고, 식사준비에 참여하면서 유기농 식자재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제공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고마움과 신뢰가 쌓여갔다. 가을에는 가족 모두가 산책을 가서 비빔밥을 나눠 먹는 '한술밥 데이'를 통해 공동체의 정을 나눌 기회를 가졌다.

부모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입으로 전해진 이야기들은 자연스럽게 어린이집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이어져, 인근 어린이집에 비해 신입원아 대기자가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전환방향 4

생태친화 보육과정으로 변화

산책, 세시잔치, 먹을거리, 텃밭, 생태미술 등

1) 산책

A어린이집은 컨설팅 이전에도 금요일 하루는 바깥놀이의 날로 정해 아파트 놀이터로 가서 오전 내내 모래놀이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원장님이 어린 시절 마음껏 뛰어놀았던 공터놀이의 추억이 지금까지도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원장님이 바깥놀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공감하여 일주일에 하루로 정해진 바깥놀이를 매일 오전 산책으로 제안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날씨로 인해(미세먼지, 폭염 등) 실외 활동이 불가한 경우에는 교사가 선택한 주제 중심 수업이 아닌, 산책과정에서

아이들이 흥미 있어 하였던 이야기나 요리활동, 미술놀이 등을 하도록 안내하였다. 자주 산책을 나가게 되면서 교사회에서 새로운 산책 장소를 함께 찾는 실천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2) 세시잔치

컨설팅 전 A어린이집의 세시행사는 명절(설, 추석) 행사를 진행한 경험뿐이었다. 그래서 세시잔치가 교사주도로 힘들게 진행해야하는 치르기식 행사가 아니라, 생활이고 신명나는 잔치임을 일깨워주기 위한 선 경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세시잔치를 직접 경험해보기를 권했고, 때마침 어린이집이 위치한 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단오잔치가 있어 그곳에 참여해 단오를 체험해보았다. 이 후 교사연수를 통해 절기에 따른 세시 풍속의 의미, 놀이, 먹거리 등을 알게 되었고, 하반기 추석잔치를 기존의 수업식 접근이 아닌 부모들을 자원봉사자로 초대해 먹고, 놀고, 즐기는 잔치로 진행하도록 권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놀이가 아닌 체험위주로 진행되는 아쉬운 점도 있었다. 이는 이후 다른 세시를 어떻게 잔치로 풀어 낼 수 있는지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단오잔치(지역 내 위치한 육아종합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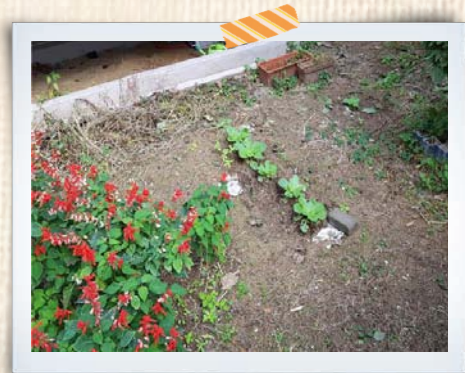
활동내용	사전활동 계획	방법	담당자
투호놀이	추석에 대해 알아보고 추석에 하는 놀이와 음식에 대해 이야기나누기	일정한 장소에 놓아둔 병을 향하여 일정한 위치에서 화살을 던져 병에 넣는다.	토끼반 선생님
강강술래		여럿이 같이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며 강강술래를 한다.	기린반 선생님
송편빚기		소를 넣고 송편 모양의 틀로 찍어낸 뒤 손으로 예쁘게 빚어 먹는다.	학부모님들



3) 먹을거리·텃밭

A어린이집은 친환경 유기농 먹을거리는 아니지만 이전에도 제철 식재료를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식단은 가공식품이 많고, 빵과 같은 밀가루 식품, 굽거나 튀기는 조리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제철 음식과 로컬푸드, 삶거나 찌는 조리방법, 직접 만든 간식, 전통음료 등을 제안하였고 이러한 먹을거리의 변화는 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텃밭은 가까운 위치에 있어 아이들이 직접 가꿀 수 있는 곳이 가장 좋다고 안내했으나, 아파트 규율상 텃밭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임대 텃밭을 사용했다. 만2세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였고 다양한 작물을 키워 요리활동과 연계하였다.



4) 분절된 단위활동(수업)에서 자유놀이로

컨설팅 이전 A어린이집의 일과는 주제별 단위활동으로 계획되어 있었고, 활동지나 똑같은 모양 만들기 등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단위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컨설팅을 통해 수업보다는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을 반영한 자발적인 놀이가 발현·유지되도록 하였고, 아이들의 놀이 흔적을 모아서 교실벽면에 활동지 대신 게시해 주기를 권했다. 이후, 교사들은 아이들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고 아이들의 놀이를 존중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컨설팅 1년을 돌아보며

A 어린이집 원장

먼저, 생태친화 보육과정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아이들을 위한 집으로 꾸며나가는데 힘써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고마운 마음입니다. 고민하고 연구하고 때로는 상충되는 의견을 조율해가며 여러 번의 회의를 거치고 거쳐, 하나씩 꾸려간 살림들로 아늑하게 탈바꿈한 어린이집을 매일 아침 들어설 때면, 차분해지면서도 가슴이 벅차오르곤 합니다. 온전한 생태친화 보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거치는 과정 속에서, 교사와 아이, 나아가서는 각 가정의 삶에 '생태'가 녹아들며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그때마다 '생태친화 보육하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유년시절, 온 동네를 누비며 친구를 불러 모아 놀던 그 때를 떠올리면 '그땐 그랬지'라며 저절로 미소 짓게 됩니다. 손에 쥐기 좋은 돌멩이를 주워 여기 저기 긁어보며 하얗게 색이 잘 묻어나는 것으로 골라 땅에 힘을 주어 그어가며 땀따먹기를 하고, 작은 돌멩이를 주워 공기놀이를 했습니다.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놀이의 규칙을 어떻게 정하는지 등은 친구들의 분분한 의견을 모아 가위 바위 보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놀이 방법이 한가지뿐인 정형화된 놀이감이 아니기에 가능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생태친화 보육과정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나가면서 아이들에게 세시풍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놀이를 통해 '신남'을 선물하고 어른이 되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소중한 기억들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케케묵은 옛날 것, 현대사회와 맞지 않는 '전통'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세시풍속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절기에 맞추어 삶을 살아낸 조상들의 지혜가 엿보이는 것이기에, 민족의 얼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 아이들이 꼭 알아야하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생태친화 보육과정을 바탕으로 잃어버린 자연과 놀이를 되찾아주어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며 신명나는 아이로 키워낼 수 있게, 오늘도 성장하는 원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부록

- ① 생태친화 어린이집 컨설팅 서식
- ② 교육부·보건복지부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2019.12.)
- ③ 생태친화 보육 관련 어린이집 평가제 개편 내용(2019.6.12.)





- 생태친화어린이집 컨설팅을 위한 자가진단지 -

기관명		진단자	
담당컨설턴트		연락처	

1. 생활공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창문을 통해 하늘과 주변 풍경을 보며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나요?				
2	교재교구나 수납장이 많아 아이들이 놀이하기에 방해가 되나요?				
3	아이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지만,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이 있나요?				
4	아이들이 거의 관심을 갖지 않지만, 비치되어있는 놀잇감이 있나요?				
5	아이들이 싫증내지 않고 자주 가지고 노는 놀잇감이 있나요?				
6	아이들이 만지고 경험하는 교재교구·놀이감·비품의 소재는 자연 친화적인가요?				
7	다른 반이나 언니·형·동생들과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장소가 있나요?				
8	교사와 아이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바깥놀이터와 산책 장소가 있나요?				
9	걸어서 갈 수 있는 가까운 장소에 매일 이용할 수 있는 흙모래 놀이터가 있나요?				
10	아이와 교사가 걸어서 갈 수 있는 텃밭이 있나요?				
11	아이들은 일상 속에서 텃밭 채소를 가꾸고 그 성장을 관찰하는 기회가 있나요?				

기술1

우리 어린이집 생활공간에서 전환해 보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2. 생활운영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	어린이집의 하루는 아이들의 생활리듬에 따라 진행이 되나요?				
13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하루일과가 융통적으로 운영되나요?				
14	집단 활동은 아이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지나요?				
15	행사가 보여주기 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나요?				
16	형이나 동생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17	교사들은 생태보육관련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 등의 기회가 있나요?				
18	교사회회의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19	부모는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교사와 협력하나요? 교사를 신뢰하고 있나요?				

기술2

우리 어린이집 생활운영에서 전환해 보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3. 보육과정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	보육계획안은 자연과 계절의 변화에 따라 계획되어 있나요?				
21	보육계획안은 아이들의 생활과 흥미에 따라 계획되어 있나요?				
22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도록 보육계획안이 계획되어 있나요?				
23	바깥놀이와 산책을 더 오래하고 싶지만 다음 일과시간에 맞추기 위해 바쁘게 교실로 돌아온 경험이 있나요?				
24	보육일지에는 아이들의 생활이 기록되어 있나요?				
25	아이의 놀이 모습을 활동 목표 달성여부 중심으로 관찰하나요?				
26	아이들의 흥미가 어디에 있었는지 일지에 기록되어 있나요?				
27	일상적인 산책과 바깥놀이가 진행되나요?				
28	안전 때문에 아이들의 자유를 제한한 적이 있나요?				
29	하루 생활에서 일회용품이 많이 사용하나요?				

기술3

우리 어린이집 보육과정에서 전환해 보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4. 아이·교사·부모 관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0	아이들은 활기차고 밝은 모습으로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나요?				
31	아이들의 웃음과 재잘거리는 소리가 어린이집에 가득한가요?				
32	아이들은 교사를 좋아하고 믿고 따르나요?				
33	교사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대하고 있나요?				
34	교사들의 모습은 전체적으로 밝고 활기찬가요?				

기술4

우리 어린이집 생태적 아이·교사·부모 관계에서 개선해 보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5. 건강·안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5	우리 어린이집은 면역력을 키우기 위한 생활습관을 가지려 노력하고 있나요?				
36	우리 어린이집은 탄산음료나 주스보다 생수 마시기를 생활화 하고 있나요?				
37	우리 어린이집은 전자파 및 유해물질로부터 아이들이 보호되고 있나요?				
38	우리 어린이집은 제철음식과 전통음식 위주의 식단을 구성하고 있나요?				
39	우리 어린이집에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자주 먹고 있나요?				
40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설거지나 청소, 소독 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있나요?				

기술5

우리 어린이집 생태적 건강·영양·안전에서 개선해 보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기술6

“생태친화어린이집 컨설팅”을 통해 개선하거나 전환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입니까?

생태친화 어린이집
컨설팅 실천계획서

- ○○○○ 어린이집 -

2021. ○○. ○○.

- 실 천 계 획 서 -

기관명		원장	
담당컨설턴트			

1. 진단총평

영역	사전진단 결과
1 생활공간	
2 생활운영	
3 보육과정	
4 아이·교사 관계	
5 건강·안전	

2. 전환항목별 실천내용 목록

- 참 관 보 고 서 -

이름:	소속: 어린이집 세반	연락처:
참관일시: 년 월 일 ~ 시	참관 기관명:	주 참관 연령:

일과 및 활동내용	근무지와 차이점
	유아 (태도, 또래관계, 놀이모습 등)
	교사 및 학부모(태도, 영유아와 관계, 교사관계 등)
	시설 및 환경(실내외 환경구성 등)

소감 및 근무지에 적용 가능하다고 느낀 부분

.....

.....

.....

.....

- 실천 보고서 -

기관명		원장	
담당컨설턴트			

1. 항목별 세부 실천 보고

NO		영역	
개선험목			
전환방안			
실천일정			
실천내용			
실천내역 (어린이집 작성)	사전 사진	사후 사진	



② 교육부·보건복지부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2019.12.)

누리과정의 성격

누리과정은 3~5세 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이다.

- | | |
|---|---|
| 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기관 및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 라 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을 추구한다. |
| 나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한다. | 마 유아, 교사, 원장(감),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함께 실현해가는 것을 추구한다. |
| 다 유아 중심과 놀이 중심을 추구한다. | |

제1장 총론

I. 누리과정의 구성방향

1. 추구하는 인간상

누리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 가** 건강한 사람 **나** 자주적인 사람 **다** 창의적인 사람 **라** 감성이 풍부한 사람 **마** 더불어 사는 사람

2. 목적과 목표

누리과정의 목적은 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에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 | | |
|--|--|
| 가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 라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문화적 감수성을 기른다. |
| 나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기초능력을 기른다. | 마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 |
| 다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른다. | |

3. 구성의 중점

누리과정 구성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 | | |
|--|--|
| 가 3~5세 모든 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라 3~5세 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한다. |
| 나 추구하는 인간상 구현을 위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반영하여 구성한다. | 마 0~2세 보육과정 및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 다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 탐구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 |

II. 누리과정의 운영

1. 편성·운영

다음의 사항에 따라 누리과정을 편성·운영한다.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가 1일 4~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한다.나 일과 운영에 따라 확장하여 편성할 수 있다.다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라 하루 일과에서 바깥 놀이를 포함하여 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마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 등으로 인한 차별이 없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바 유아의 발달과 장애 정도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한다.사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참여에 기반하여 운영한다.아 교사 연수를 통해 누리과정의 운영이 개선되도록 한다. |
|---|---|

2. 교수·학습

교사는 다음 사항에 따라 유아를 지원한다.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가 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한다.나 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한다.다 유아가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외 환경을 구성한다.라 유아와 유아, 유아와 교사, 유아와 환경 간에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마 5개 영역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유아의 경험과 연계되도록 한다.바 개별 유아의 요구에 따라 휴식과 일상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사 유아의 연령, 발달, 장애, 배경 등을 고려하여 개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배우도록 한다. |
|---|---|

3. 평가

평가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가 누리과정 운영의 질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평가를 계획하고 실시한다.나 유아의 특성 및 변화 정도와 누리과정의 운영을 평가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다 평가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한다.라 평가의 결과는 유아에 대한 이해와 누리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

제 2장 영역별 목표 및 내용

- | | | | | |
|-----------|--------|--------|--------|--------|
| Ⅰ 신체운동·건강 | Ⅱ 의사소통 | Ⅲ 사회관계 | Ⅳ 예술경험 | Ⅴ 자연탐구 |
|-----------|--------|--------|--------|--------|

※ 이하 상세한 영역별 내용은 생략



③ 생태친화 보육 관련 어린이집 평가제 개정 내용 (2019.6.12.)

평가인증제·종전



평가제·개정



1-1-1 국가수준의 보육과정에서 제시된 목표 및 내용을 반영한다

- ① 영유아의 연령에 해당하는 국가수준의 보육과정의 목표를 계획안에 반영하고 있다.
- ② 계획안의 내용은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 포함)의 영역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

1-1-2 영유아의 발달 수준 및 반 특성을 고려하여 연간, 월간, 주간, 일일 계획안을 작성한다

- ① 각 반별로 연간, 월간(또는 주간), 일일 계획안을 모두 작성하고 있다.

1-2-1 표준보육과정을 바탕으로 어린이집의 철학을 반영한 보육계획을 수립한다

- ① 표준보육과정과 어린이집의 철학을 반영하여 연간보육계획을 수립함
- ② 영유아의 흥미와 요구를 반영한 월간 또는 주간 또는 일일 보육계획을 반별로 수립함



생태친화 보육과 관련 사항

- 표준보육과정을 바탕으로 어린이집의 철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확대됨
-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이 반영된 보육계획 수립을 강조함
- 계획의 축소로 융통성 있는 보육실행이 가능

1-2-2 자유선택활동 시간을 매일 충분히 배정하여 운영한다

- ① 매일 실내 자유선택활동(자유놀이)을 기준시간에 맞게 배정하여 운영한다.
 - 맞춤형 영아: 매일 1시간 이상
 - 종일반 영유아: 매일 2시간 30분 이상

1-2-3 하루 일과에서 영유아의 자유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① 매일 실내 자유놀이 시간을 기준시간 이상으로 배정하여 운영함
 - 프로그램의 특성 상 바깥놀이 위주로 운영 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실외 자유놀이를 오전, 오후 합쳐서 2시간 이상 운영함



생태친화 보육과 관련 사항

- 실내로 한정하던 자유놀이를 실외까지 인정함

2-1-1 보육실 내 흥미영역은 영유아의 연령 및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에 구성한다

2-1-1 보육실 내 흥미영역 또는 놀이영역은 영유아의 연령 및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영유아의 놀이와 연계하여 구성한다



생태친화 보육과 관련 사항

- 기존의 보육실내 공간구성을 흥미영역으로 제한하였지만, 놀이영역을 추가 하여 다양한 공간구성을 추구함

“2019년 6월 12일 시행된 새로운 평가제의 내용 중 생태친화 보육과 관련된 사항들을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평가인증제·종전



평가제·개편



2-1-4 계획안의 주제와 관련된 활동자료들을 영유아의 연령 수준에 맞게 영역별로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다 - 영아: 영역별 3종 이상 - 유아: 영역별 4종 이상 - 활동자료는 만0~1세 2개 이상, 만2세 4개 이상, 만3~5세 5개 이상 준비	1-3-3 영유아의 다양한 놀이와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 교사는 영유아의 연령, 발달수준, 사전경험을 고려하여 놀이 및 활동자료를 준비함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놀이 및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함
---	--



생태친화 보육과 관련 사항

- 영역별 구비 놀잇감의 종수 및 개수를 제시하는 양적 평가에서 영유아의 놀이나 활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하고 충분한 놀잇감을 강조함

2-2-3 실외공간에 다양한 활동 영역을 제공하고 있다 ① 실외 공간에 두 가지 이상 다양한 활동 영역이 제공되고 있다	2-2-3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다양한 바깥놀이 활동이 이루어진다 ② 바깥놀이시 자연과 친숙해지는 경험이 이루어짐
---	---



생태친화 보육과 관련 사항

- 실외공간의 구성과 운영에서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바깥놀이 환경을 강조하고 자연과 친숙해지는 경험의 내용이 신설됨



참고문헌

김은영 2016 / 생태유아교육기관 전환컨설팅 모형 개발 연구 /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은주·심미연·이숙희·신주연·이주영 2017 / 생태유아교육기관 운영매뉴얼 / 경기·공동체
 백정아·임재택·이주희·이선화 2018 / 자연·놀이·아이중심 유아교육과정 / 경기·공동체
 교육부·보건복지부 2019 /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사단법인 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 2016 / 2016년 시흥시 생태유아교육기관 전환컨설팅 보고서 /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18 / 2018년 서울시 도봉구 생태유아교육기관 전환컨설팅 보고서 /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서영희·김은주·임재택 2018 / 대한민국 유아들의 서로 다른 두 모습 / 경기·공동체
 심미연 2015 / 생태유아교육기관 평가체계 모형 개발 연구 /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육아정책연구소 2012 /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교사연수 자료집
 임재택. 2008 / 생태유아교육개론(제3판) / 경기·양서원
 임재택·김은주·하정연·권미량·조채영 2016 / 생태유아교육프로그램 / 경기·공동체
 임재택·조순영·김은영 2017 / 생태유아교육기관 전환컨설팅-우리 유치원 어린이집도 생태유아교육 할 수 있어요 / 경기·공동체
 해운대구 2018 / 생태유아교육 시범어린이집 3차년도 사업보고서

자연 / 놀이 / 아이 중심의 서울시 생태친화 어린이집 안내서

제 작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이미숙 서울시 보육담당관
주병준 서울시 보육담당관 보육기획팀장
김혜원 서울시 보육담당관 보육기획팀 주무관
전소민 서울시 보육담당관 보육기획팀 주무관
이남정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조경진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기획총괄사업팀장
박수빈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집필진 임재택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명예교수
조순영 (사)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 소장
임지연 (사)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 연구위원
송주은 동의과학대학교 유아교육과 겸임교수

발행 2019년 8월
2021년 1월 1차 개정 발행

발행처 서울특별시 ☎국번없이 120 (다산콜)

디자인·제작 하늘디자인

* 본 책자의 저작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으며, 사전 승인없이 자료집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